금수강산
9
주체113(2024)
루계 제421호 월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늘의 조국사 2024 ISSN 1727—9062

차 례

주체113(2024)년 9월호

주체78(1989)년 8월 창간

표지: 전위거리의 밤
수도 평양의 북쪽관문에 일떠선 전위거리에 밤이 깊어간다.
80층살림집을 비롯한 다양한 형식의 고층, 초고층살림집들, 공공건물들로 장관을 이룬 현대적인 새 거리를 청년들은 단 1년동안에 건설하였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편집: 김광수, 최은혁, 서철남, 로윤경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을 앞둔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주체113(2024)년 4월

현실로 펼쳐지는 인민의 꿈과 리상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지만 조국에서는 1년이면 인민의 꿈과 리상이 비낀 창조물들이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몇해전 조선로동당은 수도에 5만세대 살림집을 5개년계획기간에 건설할 웅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해마다 1만세대 살림집건설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첫 실체인 송화거리 살림집건설은 주체110(2021)년 3월에 착공하여 주체111(2022)년 4월에 준공되였고 화성지구 1단계 살림집건설은 주체111(2022)년 2월에 착공하여 주체112(2023)년 4월에 준공되였다. 이어 진행된 화성지구 2단계 림흥거리건설과 서포지구 전위거리건설도 1년안에 완공되여 올해에도 수많은 수도시민들이 현대적인 새집들에 보금자리를 펴는 경사를 맞이하였다.

주목되는 점은 림흥거리와 전위거리가 지금까지의 모든 건축물보다 또 한단계 도약한 보다 현대적이라는것이다.

한편 그 규모와 현대화수준이 높은 중평온실농장과 련포온실농장이 일떠선데 이어 보다 발전된 강동종합온실농장건설이 1년내에 완공되였으며 준공 및 조업을 선포한 후 10여일만에 수도시민들에 대한 남새공급을 시작하였다.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건설사업은 수도 평양만이 아니라 조국의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고있다.

농촌진흥을 위한 방대한 살림집건설이 힘있게 벌어지고있으며 《지방발전 20×10 정책》 실현을 위한 지방공업공장건설이 20개 군에서 동시에 전개되였다.

동시다발적으로, 맹렬한 속도로 진행되는 건설들로 하여 수도 평양에서는 2월과 3월에 착공식들이 진행되고 다음해 4월에 준공식들과 《새집들이계절》이 펼쳐지는것이 하나의 관례처럼 되고있다. 그리고 전국의 농촌살림집 준공식과 새집들이도 온 한해 끊기지 않고 진행되는것이 례상사로 되고있다.

머지않아 나라의 20개 군들에는 강원도 김화군 지방공업공장들보다 더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이 준공될것이며 이러한 준공식은 10년간 련이어 벌어져 인민들을 기쁘게 할것이다.

적대세력들의 군사적위협과 압살책동이 최악에 이르고있는 조건에서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이 여러 분야에서 기세차게, 눈부시게 솟구칠수 있은 비결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인민들에게 하루속히 세상에 부럼없는 복리와 혜택을 안겨주시려는 숙원과 열망을 안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비상한 정열과 의지, 천신만고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인것이다.

수도의 5만세대 살림집건설과정을 놓고보아도 그렇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5개년계획기간에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을 진행하여 수도시민들의 살림집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과업이 제시되였을 때 인민들이 받아안은 충격은 컸다.

당시 나라앞에 부닥치는 도전과 장애가 그 어느때보다 혹심한 때여서 누구도 살림집건설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후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서는 그 어떤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당대회결정관철의 첫해에 평양시에 1만세대 살림집을 무조건 건설하려는 당중앙의 확고부동한 결심이 또다시 천명되였다. 그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몸소 살림집건설착공식에 나오시여 5만세대 살림집건설은 당의 숙원사업이라고 언명하실 때 조국인민은 그이의 인민사랑의 세계에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몸소 살림집건설의 발기자, 건설주, 시공주가 되시여 송화거리건설형성안만 해도 무려 1 000여건이나 지도해주시며 바쳐가시는 그이의 헌신과 로고를 가슴속에 새겨안으며 건설자들은 살림집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그렇게 되여 송화거리 1만세대 살림집이 일떠선데 이어 화성지구 1단계 화성거리와 2단계 림흥거리, 서포지구의 전위거리건설에서 혁신이 일어나게 되였다.

지방인민들의 숙망을 위해 바쳐오신 그이의 로고와 헌신도 가슴뜨겁다.

언제나 지방인민들의 생활

주체111(2022)년 2월에 착공하여 주체112(2023)년 4월에 준공된 화성거리

을 두고 마음쓰시며 남새가 귀한 고장의 인민들을 위해서는 대규모온실농장들을 일떠세워주도록 하시고 자연재해가 휩쓴 지역의 인민들을 위해 더 크고 훌륭한 새 마을들을 건설하도록 하시였으며 평범한 광부들을 위한 산악협곡도시를 보란듯이 세워주도록 하신 그이이시였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을 모르시는 그이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서는 언제 가도 지방경제를 발전시킬수 없으며 인민생활에서

수도 평양의 문수지구에는 전문병원들과 종합병원들이 집중되여있는 병원촌이 있다.
이곳의 병원들에는 인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인민적인 보건시책이 어려있다.

주체112(2023)년 2월에 착공하여 주체113(2024)년 5월에 준공된 전위거리

뚜렷한 변화를 가져올수 없다고 하시며 지방의 세기적인 락후성을 털어버리고 지방인민들의 숙원을 풀어주기 위한 거창한 혁명으로 되는 새로운 지방공업발전정책과 그 실행을 위한 중대조치들을 만장에 선언하시였다.

그리고 그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하나하나 세워주신 그이께서는 그후 시범적으로 꾸린 김화군을 현지지도하시였으며 몸소 성천군 지방공업공장건설착공식에도 참가하시여 착공의 발파단추도 누

주체102(2013)년에 일떠선 문수물놀이장은 근 11만㎡의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있다.
이곳에는 면적이 1만 6 500㎡이고 근 1 200명의 수용능력을 가진 실내물놀이장도 있다.

산간문화도시인 삼지연시가 사회주의리상향으로 펼쳐졌다.

르시였다.

돌이켜보면 흘러간 10여년 기간에 려명거리와 미래과학자거리, 문수물놀이장과 류경안과종합병원 등은 물론 북부지구의 삼지연시와 그리고 오늘날의 농촌살림집건설 등 그 어디에나 인민에 대한 그이의 헌신의 자욱이 력력히 어리여있다.

그 나날 인민의 리상사회를 앞에 두고 주춤할 권리도 외면할 권리도 없으며 그 무슨 조건이 지어지기를 기다릴 권리도 없다는것, 어려울수록 더 높은 리상을 지니고 혹독한 위기를 절호의 호기로 역전시키며 웅대하게 세운 구상들을 완벽하게 실천해나가야 한다는 투쟁방식을 철칙으로 여기며 완강히 구현해가신 그이이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이렇듯 위대한 사랑과 헌신이 있어 조국이 전진하고 인민이 바라는 거창한 창조물들이 세인을 놀래우며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르는것이다.

수도의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농촌살림집들, 지역의 특성에 맞게 건설되는 지방공업공장의 모습을 보는 조국인민들의 감격은 참으로 크다.

이제 또 래일이면, 이제 또 한해후이면, 이제 또 10년후이면 조국은 얼마나 발전하고 인민의 웃음소리는 얼마나 높이 울려퍼지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가슴들먹이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가리키시는 길은 곧 승리의 길이며 그이께서 하라는대로만 하면 그 어떤 기적도 이루어낼수 있다는 신념을 더욱 굳히는 조국인민이다.

걸출한 령도가 있고 그 령도에 충실한 인민이 있어 우리 조국에서는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이 빛나는 현실로 펼쳐질것이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조선중앙통신

강동종합온실농장

김화군의 지방공업공장들

매일같이 전해지는 새집들이소식들

황해북도 상원군 장항리에 새집들이경사가 났다.

강원도 고산군의 연호리와 설봉리에도 농촌문명을 자랑하는 선경마을들이 솟아났다.

우리 당이 펼친 새시대 농촌진흥의 웅대한 설계도가 현실로 펼쳐져 농촌의 면모가 일신되고있다.

평안북도와 황해남도에 이어 강원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등 이 땅 그 어디서나 농촌살림집들이 새로 일떠서 매일과 같이 전해지는 새집들이소식은 나날이 부강하는 우리 조국의 정서를 더해주고있다.

주체111(2022)년 농촌진흥의 새시대가 펼쳐진 때로부터 올해 상반년기간까지 나라의 곳곳에 일떠선 농촌살림집들의 세대수는 4만 4 000여세대이다.

올해 상반년기간 60여개 농장들에 건설된 농촌살림집들의 세대수는 1만 8 000여세대, 이미 완공된 농촌살림집들과 마감단계에 들어선 대상들과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는 대상들까지 다 합치면 전국적으로 무려 11만 3 700여세대나 된다.

벌방지대와 산간지대, 해안지대를 비롯하여 해당 지역의 특색과 현대미를 살리면서 농업근로자들의 생활상편의를 도모할수 있는 조건들이 원만히 갖추어지고 원림록화로 풍치를 돋군 단층, 다락식, 소층살림집들은 한 농장, 한 마을에서도 형형색색이다.

새라새롭게 일떠선 농촌살림집들에 입사하는 모임이 진행되는 나라의 방방곡곡 그 어디에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울려퍼지고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고있으며 집집마다에서 감격과 기쁨이 넘쳐흐르고있다.

지난 5월에 새집들이를 한 황해북도 황주군의 농장원들은 밖에서 볼 때도 멋있었지만 집안에 들어서면 더 희한하다고, 원래 살던 집보다 훨씬 넓은데다가 살림방도 여러칸이고 부엌과 세면장도 편리하게 꾸려져있으니 정말 행복의 별천지에 온것만 같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런 멋있는 집을 짓는데 우리가 돈 한푼 보탠것이 없는것은 말할것도 없고 흙 한삽 떠보지도 못하였다고 자기들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평안북도 태천군의 한 농장에서는 명절을 하루 앞두고 한날한시에 일가친척 10여세대가 동시에 새 살림집에 입사하는 경사가 생겨 서로가 자기 집에 모여 명절을 쇠자고 양보하지 않는 행복한 싱갱이질이 벌어졌다.

함경남도 홍원군의 한 농장의 농장원은 총각인 자기에게도 새집이 차례지는 꿈같은 현실에 접하고보니 나라의 은덕에 보답해야겠다는 열의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지난해 새 살림집을 받은 황해남도 청단군의 한 농장원이 10여정보의 저수확지를 스스로 맡아 농사를 지어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많은 량의 낟알을 나라에 바친것을 비롯하여 농민들의 애국적인 소행은 천지개벽된 농촌마을 어디서나 례상사로 되고있다.

사회주의농촌에 펼쳐지는 새집들이정서, 이것은 당의 령도에 의해 더욱 몰라보게 변모될 사회주의리상촌의 래일을 확신케 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대철
사진 조선중앙통신

인민의 정권을 세우시여

지난 세기 우리 인민은 40년간이나 일제의 군사적강점밑에서 망국노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며 지지리 눌리우고 짓밟혀왔다.

령토도 자원도 국권도 지어는 자기의 성과 이름까지도 모두 빼앗겼던 우리 인민에게 해방의 새봄을 찾아주시고 이 땅우에 인민이 주인이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세워주신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였다.

1945년 해방을 맞이한 우리 나라의 정세는 매우 복잡하였다. 복잡다단한 시국속에서 민족의 장래발전에 대한 그 어떤 똑똑한 정치적견해도 못가진 사람들은 갖가지 궤변들을 늘고나와 새 조국건설의 길에 난관을 조성하고있었다. 그들가운데는 해방된 조선은 부르죠아제도를 세우는 길로 나가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당장 사회주의길로 나가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적관점에서 해방된 조국에 조성된 정치정세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시여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할데 대한 로선을 제시하시고 건당, 건국, 건군사업을 새 조국건설의 3대과업으로 내세우시였다.

조국인민들과 만나시여 개선연설을 하시던 력사의 그날에도 그이께서는 새 조선에 세워야할 정권은 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나라와 민족의 부강발전을 확고히 담보할수 있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라고, 이러한 정권은 바로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시였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라고 하면 사회주의국가인 쏘련식민주주의와 자본주의국가인 미국식《민주주의》만을 알고있었다. 그러므로 적지 않은 사람들은 새 조선을 건설해나가자면 이 두길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는것으로 잘못 생각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광범한 인민에게 우리 식의 독특한 민주주의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가 지향하는 진보적민주주의는 자본주의국가의 《민주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를뿐 아니라 사회주의국가의 민주주의를 그대로 본딴것도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것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단계에 놓여있는 조선의 현실에 가장 알맞는 새형의 민주주의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 제시하신 민주주의인민공화국로선은 조선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준 등대였고 인민의 새 나라를 일떠세우기 위한 명확한 진로를 밝힌 건국대강이였다.

인민들의 총의에 의하여 자기 손으로 지방주권기관들을 세우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신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해방이 된지 2～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나라의 모든 지역에서 도, 시, 군, 면, 리인민위원회들이 조직되여 자기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이께서 펼치신 인민정권건설의 구상에 의해 조국땅은 새생활창조의 드높은 열기로 끓어번지였고 오랜 세월 무지와 몽매속에서 허덕이던 인민이 난생처음 땅의 주인, 공장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 세기적변혁이 일어났다.

주체37(1948)년 9월 평양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가 소집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엄숙히 선포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

그것은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조선이 주체의 나라로 솟아오르고 우리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존엄높은 자주적인민으로 되였음을 만방에 알리는 획기적사변이였다.

력사의 그날로부터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조선, 영웅조선의 위용을 높이 떨치며 남들이 보란듯이 우리 조국을 부강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킬수 있었다.

본사기자 변진혁

수필

국책에 대한 생각

얼마전 평양시의 모란봉구역 월향동주일탁아소를 찾았을 때였다.

탁아소에 들어서니 아이들의 새참시간이였다.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빵을 손에 들고 맛있는 우유를 마시고있는 어린이들은 하나와 같이 보동보동하였다.

어린이들의 모습을 렌즈에 담아가는 나에게 장윤희소장은 당의 육아정책에 의하여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몰라보게 성장한다고, 나라에서는 어린이영양관리에 필요한 모든 원자재와 식품을 전적으로 보장해준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국책이 정말 좋다고 눈굽을 적시는것이였다.

국책!

매 나라마다 국책이 있다.

국가가 어느 계급의 리해관계를 반영한 정책을 세우는가에 따라 그 사회의 성격이 규정되게 된다.

하다면 최근 조국에서 내놓는 국책은 누구를 위한것이던가.

생각할수록 가슴이 뜨거워진다. 로선을 하나 내놓고 정책을 세우기 전에 먼저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의사와 요구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우리 국가.

인민이 아파하고 절절히 바라는 문제가 무엇이며 지어 지도의 제일 끝마을에 위치한 집의 식구수는 몇명이며 숟가락이 몇개인가도 헤아리는 우리 조국이다.

어디 그뿐인가.

조국에서는 어린이들의 성장발육에 좋은 영양식품들에 대한 분석도 해보고 그들을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키우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부모들보다 더 왼심을 쓰기를 그 몇번…

바로 그래서 국책 하나하나가 제시될 때면 인민의 마음속에서는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리는것이다.

국책들을 손에 꼽아볼수록 더욱 가슴뜨거워진다.

당의 육아정책으로부터 시작하여 영원한 국책인 학생들의 교복은 물론 신발, 가방 등 필수용품보장, 수도시민들을 위한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 농업근로자들을 위한 사회주의농촌건설, 《지방발전 20×10 정책》…

어느것 하나 인민과 동떨어진 국책은 하나도 없다.

또 조건이 어렵고 그 무엇이 부족하다고 중도에서 실행되지 않은적도 없다.

지금도 생생히 떠오른다.

힘겨울수록 어린이들에게 정성을 더 쏟아붓고 그 사랑의 힘으로 공산주의미래를 향하여 완강하게 나아가는것이 우리 혁명의 전진방식, 발전방식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며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당의 육아정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중요한 의정으로 토의하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자애로운 모습이.

새로운 육아정책이 수립되고 그 다음해인 2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이 채택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우리 인민은 나라의 혜택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속속들이 흘러드는가를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화폭으로 새기였다.

주체111(2022)년 악성비루스의 류입이라는 돌발적인 비상사태가 조성되였던 시기에도 애기젖가루, 암가루들은 산골막바지에까지 공급되였고 달력에는 명절, 휴식일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여있어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젖제품공급에는 휴식일이 없이 방학기간에도 젖제품을 실은 차들이 줄지어 달리였다.

육아정책뿐이 아니다.

도전과 장애가 그 어느때보다도 혹심한 상황에서도 살림집건설을 제1차적인 중요정책과제로 내세우고 주체110(2021)년부터 해마다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의 폭음을 울리였다.

착공후 1년만에는 어김없이 희한한 멋쟁이거리들이 창공높이 솟아올라 어디 가나 새집을 받은 사람들의 기쁨이 넘쳐흘렀다.

수도만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농촌진흥의 새시대가 펼쳐져 《새집들이계절》을 맞이했다.

정녕 인민의 소원을 국책으로 정하고 무조건적으로 실행해나가는것이 우리 조국의 현실이다.

그렇다.

날마다 늘어나는 국책은 우리에게 속삭여주고있다.

인민이 바라는것은 곧 우리의 국책이라고.

나는 뜨거워지는 마음을 안고 탁아소를 나섰다.

본사기자 엄향심

국가는 의무로, 인민은 권리로

- 평양시인민위원회 책임부원 강신철과 본사기자와의 대담 -

기자: 인민이 자주적인간의 삶을 누려가자면 국가의 모든 활동이 인민대중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는데로 지향복종되고 그것이 법적으로 굳건히 담보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신철: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민족도 많지만 우리 인민처럼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법의 철저한 보호를 받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려가는 인민은 없습니다. 사회주의법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적권리와 창조적활동을 충분히 보장받고있습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였다고 하여 사회주의국가의 인민적성격이 저절로 고수되고 구현되는것은 아닙니다.

국가의 모든 활동이 인민대중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는데로 지향복종되고 그것이 법적으로 굳건히 담보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법은 어느것이라 할것없이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고 그것을 철저히 보호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습니다.

기자: 최근년간 새로 채택되거나 수정보충된 법들을 놓고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신철: 그렇습니다. 로동보호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보장하며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적극 보호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보호법,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장애자들에게도 차별없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인간으로서 보람찬 삶을 누리도록 담보해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과 장애자권리보장법, 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며 녀성들의 가정적부담을 덜어주는데 이바지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급양법, 인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을 비롯하여 새로 채택되거나 수정보충된 법들에도 당과 국가의 인민적성격이 그대로 반영되여있습니다.

주체111(2022)년 2월 7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14호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이 그 대표적실례입니다.

4개의 장에 61개 조항으로 구성된 육아법은 이 법의 사명과 기본원칙, 규제분야를 비롯하여 어린이식료품의 생산과 공급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철저히 담보하고있습니다.

육아법 제2조에는 어린이는 조국의 미래이고 나라의 귀중한 보배이며 어린이들을 잘 키우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고, 국가는 어린이영양식품의 생산 및 공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모든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무상으로, 정상적으로 공급하며 가장 훌륭한 양육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고 규제되여있습니다.

기자: 정말이지 당과 국가가 인민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주고있기에 조국에서는 사회주의법의 보호를 받으며 사람들이 세상에 태여나서부터 생을 마칠 때까지 안정되고 문화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강신철: 인민을 위한 법들은 그뿐이 아닙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연료법, 상수도법과 하수도법을 비롯한 부문법들은 인민들에게 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조건들을 충분히 보장해주도록 하고있습니다.

살림집의 인계, 이관인수 및 등록, 배정, 관리,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에게 안정되고 문화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살림집관리법 제3조에서는 국가는 살림집배정에서 인민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도록 한다고 규제함으로써 누구나 행복의 보금자리에서 그늘없이, 근심없이 살도록 모든 조건을 보장하여주고있습니다.

이처럼 인민들의 자주적권리와 창조적활동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철저히 보호해주는 고마운 사회주의법이 있어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회와 가정의 한 성원으로서 자기들의 지위를 떳떳이 차지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려가고있는것 아니겠습니까.

국가는 의무로, 인민은 권리로.

이 말속에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참모습이 그대로 응축되여있습니다.

글 본사기자 강진성
사진 방은심, 손희연
조선중앙통신

국가에서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들을 무상으로, 정상적으로 공급하고있다.

인민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다.

국가적부담으로 온 나라 학생들에게 교복과 가방, 신발, 학용품이 생산공급되고있다.

장애자들도 자기의 재능과 희망을 마음껏 꽃피우고 있다.

우리 대의원들

인민의 대표자들인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들,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인민의 아픔은 나의 아픔

평천구역인민위원회
위원장 리지남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평천구역인민위원회 위원장 리지남은 구역안의 주민들로부터 《우리 위원장》이라는 친근한 이름으로 불리우고있다.

비록 다섯글자밖에 안되지만 여기에는 구역내주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의 모습이 비껴있다.

그는 지역의 호주라는 책임감을 항상 자각하고 주민들의 생활형편을 료해하고 대책하고있다. 지난 몇년기간에 그는 구역의 일군들과 함께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한것은 물론 교육부문에서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보건시설을 현대적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을 밀고나갔다.

뿐만아니라 언제나 주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마음속그늘을 가셔주고있다.

8년전 어느한 동의 주민세대에 나갔던 그는 그곳 동사무장으로부터 부모를 잃은 녀학생이 고령의 할머니와 함께 살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는 설명절날 할머니의 집부터 찾았다. 이때부터 할머니, 손녀와 인연을 맺은 그는 그들의 살림살이를 친혈육의 심정으로 따뜻이 돌봐주었다.

그는 녀학생이 견학을 가거나 답사를 떠날 때면 친아버지가 되여 하나하나 준비해준것은 물론 학부형총회에도 참가하군 하였다.

수만세대의 생활을 헤아리는 바쁜 속에서도 그는 언제나 그 학생의 학습지도, 가정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하여 소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였으며 오늘은 한가정의 주부가 되였다.

리지남대의원은 나라에서 하늘처럼 떠받드는 인민을 위해 한가지라도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사색하고 또 사색하고있다.

미래를 위해 바치는 진정

평양시적으로 소학교학생들의 상급학교입학률이 높은 학교들중에는 서성구역 상흥소학교도 있다.

올해에도 이 학교의 적지 않은 졸업생들이 평양제1중학교와 금성학원,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무용종합대학들에 추천되여갔다.

이러한 성과뒤에는 한미화교장의 노력이 깃들어있다.

8년전 교장으로 임명된 그는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을 떼였다.

학교내외부를 일신하는것은 물론 종합체육관건설도 함께 밀고나갔다.

1년간의 고심어린 노력끝에 학교를 번듯하게 일떠세운 그는 교원들의 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도록 하였다.

평양시 서성구역 상흥소학교
교장 한미화
(평양시인민회의 대의원)

또한 교원들이 매 학생의 천성적인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적극 꽃피워주도록 하였다. 학교에서 운영되고있는 30여개의 소조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한미화교장은 매 교원들이 한명의 학생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천성을 찾아서 키워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군 한다.

하기에 서성구역주민들은 아이들을 위해, 미래를 위해 자기를 다 바쳐가고있는 한미화교장을 지난해 평양시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였다.

불밝은 거리를 위해

평양에서 나서자란 많은 사람들은 노래 《지새지 말아다오 평양의 밤아》를 무척 사랑한다.

보통강구역가로등사업소 로동자 남영철도 마찬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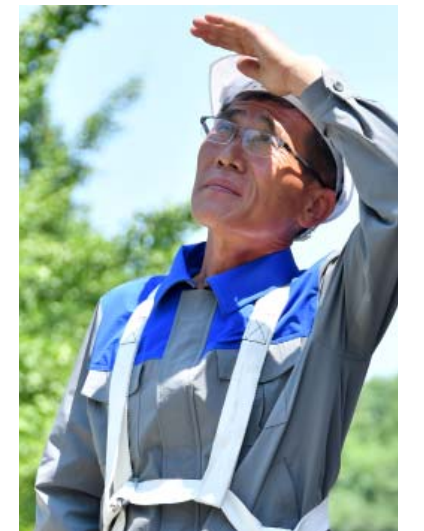
그는 매일 이 노래를 부르며 누가 보건말건 자기가 담당한 가로등들에 대한 순회길을 이어가고있다.

그에게는 명절, 일요일이 따로 없다. 그만큼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 얼마전에는 가로등정상관리에 필요한 효과적인 케블탐측기개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나라의 혜택속에 그는 송화거리의 새집도 배정받았다.

《집집의 창가마다에서 울리는 노래를 들으며 불밝은 거리를 거니는 기쁨이란 체험해본 사람만이 알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평양의 경치는 우리 가로등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습니다. 끝없이 걷고만싶은 나의 거리입니다.》라고 그는 말하였다.

묵묵히 성실한 땀을 바쳐가는 남영철, 그의 모습은 구역주민들의 마음속에 새겨졌다.

보통강구역 보통강1동 주민들은 그를 보통강구역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찬성투표하였다.

보통강구역가로등사업소
로동자 남영철
(보통강구역인민회의 대의원)

인민의 복무자들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것은 우리 국가의 시종일관한 정책이다.

이 정책집행을 위하여 언제나 바쁘게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일군들의 모습을 조국땅 그 어디 가나 볼수 있다.

그들중에는 평양시 만경대구역인민위원회 일군들도 있다.

생활용수통합관리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협의회를 진행하고있다.

이곳 일군들에게는 하나의 사업철칙이 있다.

그것은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정신으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을 부단히 모색하고 설계하며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완전무결하게 집행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우리와 만난 이곳 인민위원회 부원인 오명식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라에서는 늘 우리 일군들이 인민을 위해 존재하고 인민의 리익을 위해 복무하는 사명에 맞게 인민적시책들이 우리 아이들과 매 주민들에게 정확히 가닿도록 무한한 책임성을 발휘할것을 바라고있습니다. 이에 비해볼 때 지금까지의 사업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지만 아직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구역인민위원회에서의 첫 일과는 일군들이 담당한 주민지역에 나가 인민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료해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구역안의 상하수도, 보건, 상업 및 급양봉사 등 각 분야들에 대한 료해과정에 주민들속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종합하여 해당한 대책을 세워나가고있다.

이 과정에 인민생활향상에 절실한 문제들은 구역적인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집행해나가고있다.

구역인민위원회에서는 올해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첫 자리에 주민들에 대한 생활용수 공급의 현대화수준을 높이는 문제를 제기하고 년초부터 이 사업에 달라붙었다.

수천m³능력의 취수정건설, 뽐프장과 물탕크개건공사, 상수도관과 전력케블교체 등 방대한 공사였다.

구역에서는 단계별목표를 확정한데 기초하여 책임일군들부터가 앞채를 메고 공사의 시공주, 건설주가 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한편 인민위원회 일군들이 한개 지구씩 맡아 공사지도를 책임적으로 조직진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생활용수통합관리체계를 제일먼저 확립하여 주민들에 대한 생활용수공급사업이 보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게 하고 생활용수공급의 과학화를 실현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구역인민위원회에서는 구역안의 주민들이 치료봉사사업에서 실지로 덕을 볼수 있게 하기 위한 종합적인 약국건설 역시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 일군들이 총동원되여 40여일만에 공사를 결속하고 봉사를 시작하였다.

이밖에도 교육기관들의 건설 및 개건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교구비품들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과 어린이들을 위한 젖제품생산 및 보관기지확장공사도 구역인민위원회 일군들이 부모가 된 심정에서 스스로 맡아 해나가고 있는것을 비롯하여 이곳 일군들 모두가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사명감을 안고 늘 인민을 위한 사색과 실천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있다.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이런 일군들이 있어 인민들은 사회주의조국을 어머니품으로 여기며 그 조국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서슴없이 바쳐가고있는것이다.

글 본사기자 김수정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상점들에서 주민들의 수요를 장악하고있다.

주민세대들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료해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라자구등판에서

일본군대의 안도입성은 시간문제로 되고있었다. 친일적인 지주들은 일본인들을 맞기 위하여 벌써 기발까지 준비하였다. 구국군은 량강구에 더 오래 머물러있을수 없게 되였다. 맹탄장부대에는 산을 끼고 초원이 있는 라자구, 왕청방향으로 퇴각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우리도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여 구국군과 함께 안도를 떠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을 채택한것이 바로 량강구에서 열린 병사공작위원회 회의였다. 총적인 지향은 왕청으로 활동거점을 옮기는것이지만 당분간은 퇴각하는 구국군부대들이 집결되고있는 라자구에 틀고앉아 거기서 반일부대들과의 사업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우사령부대도 안도에서 라자구로 철수하였다.

우리가 북만으로 갈 준비를 한창 다그치고있을 때 철주동생이 나를 만나려고 량강구에 찾아왔다.

《형, 나두 형님네 부대를 따라가구싶어. 형님없이는 토기점골에서 더 못살겠어요.》

동생은 내가 묻기도 전에 찾아온 용건을 스스로 고백하였다. 동생이 우리 부대를 따라가고싶어하는 심정은 나도 리해할수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소사하골짜기에서 남의 눈치밥을 얻어먹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것이 감수성이 예민한 그 나이의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견디기 어려운 일로 되지 않을수가 없었다.

《너마저 토기점골을 떠나면 영주는 어떻게 하니? 그 애가 고독해서 견디지 못할텐데.》

《둘이나 남의 집 밥을 먹으니 미안해서 못견디겠어요. 막내 혼자만 있으면 덜 미안할것 같애.》

나는 철주의 말이 리치에 맞는다고 생각하면서도 그의 요구를 받아들일수 없었다. 동생의 나이가 열여섯살이니 총을 메워주면 부대를 따라다니며 군인생활을 할수도 있었다. 철주는 나이에 비해 몸집도 크고 체격도 좋았다. 하지만 아직 뼈가 채 여물지 않아서 유격대의 짐이 될수 있었다. 더구나 철주는 안도지구에서 공청사업을 추켜세워야 할 무거운 책임을 걸머지고있었다.

《네가 이년이나 삼년후에 그런 청을 한다면 형은 너의 청을 선뜻 받아들일게다. 그런데 지금은 그 청을 들어줄수 없구나. 좀 고생스럽고 고독스럽더라도 몇해만 참아다구. 남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도 하고 계절로동 같은것도 하면서 공청사업을 좀 본때있게 내밀어보아라. 지하활동도 무장투쟁 못지 않게 중대한 사업인데 그걸 무시하면야 안되지. 공청사업을 하다가 때가 되면 혁명군에 오너라.》

나는 철주가 떼를 쓰지 못하게 여러가지로 구슬려보았다. 그러다가 그를 데리고 못가에 있는 객주집에 갔다. 문풍지소리가 궁상스럽게 붕붕거리는 썰렁한 방안이였다.

나는 술과 안주를 청하였다. 싸늘하게 식은 언두부접시 두개, 그사이에 놓은 술병 하나.

그것을 보더니 철주는 눈물이 글썽해지는것이였다. 동생은 내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것을 알고있었기때문에 그 한잔의 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벌써 짐작하고있는 모양이였다.

《철주야, 너의 청을 들어주지 못하는 이 형을 용서해다구. 낸들 왜 너를 데리고다니구싶은 마음이 없겠니. 너를 떼두고 가자니 내 가슴도 아파서 찢어질것만 같구나. 그렇지만 철주야, 섭섭한대로 우리는 여기서 또 헤여져야겠다.》

나는 술기운의 덕으로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서는 입에 쉽사리 옮길수 없는 말을 단숨에 해버리였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고여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내가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밖에 나오자 철주도 마시던 술잔을 내버린채 나를 따라 일어섰다.

《알겠어요, 형!》

이 한마디와 함께 철주는 뒤로 다가와 내 손을 소리없이 잡았다놓는것이였다.

이렇게 되여 나는 동생과 헤여졌다. 그리고는 다시 만나지 못하였다.

그 음산하고 처량한 못가의 가을을 회상할 때마다 나는 그날 내 손을 살그머니 잡았다놓고 가던 동생의 손을 더 오래 그리고 더 뜨겁게 잡아주지 못한것을 두고두고 후회하군 하였다. 지금 생각해보아도 그것은 너무나 쓸쓸한 작별이였다.

만일 그때 내가 철주의 청을 들어주었더라면 동생은 스무살도 채 되지 못한 나이에 일찌기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런지도 모른다. 실로 불같이 살다가 불같이 가버린 인생이였다.

철주는 열살을 넘기기 바쁘게 혁명조직을 따라다니였다. 무송에 있을적에는 새날소년동맹 선전책으로 활동하였고 소사하에 와서는 구공청위원회 비서로 사업하였다.

량강구에서 나와 헤여진 철주는 그후 수많은 공청원들을 키워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시키였다. 그는 자청해서 어려운 반일부대와의 사업도 하였다. 그는 반일부대병사들과 함께 대전자시가를 습격하는 전투에도 참가하였다. 그가 관계하였던 두의순이 지휘하는 반일부대는 일본군의 간도토벌대와 잘 싸웠다고 한다.

그후 철주는 안도반일부대 공작부장의 중임을 지니고 연길현 부암동 장재촌 사슴페에 있는 서규오반일부대와의 사업도 하였다. 서규오는 반일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조선공산주의자라면 덮어놓고 적대시하는 성미가 괴벽하고 고집이 센 두령이였다. 그도 초기에는 조선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냈다.

서규오가 조선공산주의자들을 괭대하기 시작한것은 부암동의 반일부녀회원들이 그가 첩으로 삼으려고 억류해두고있던 공청원처녀(조선녀자)를 탈환해온 후부터였다. 그 처녀는 연예대원들과 함께 반일부대에 선전공작을 하려 갔다가 그에게 억류되였다. 일단 그렇게 걸려들면 어떤 녀자든지 서규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서는 무사할수 없었다.

서규오는 그런 방법으로 자주 녀자를 갈아대였다.

부녀회원들이 공청원녀자를 탈환해온 후부터 조선사람들은 서규오의 부대에 발을 붙일수가 없게 되였다. 과거에 서규오와 너나들이로 허물없이 지내던 사람들까지도 그의 곁에 가서 붙지 못하였다. 서규오는 상사병으로 고민하면서 부하들을 시켜 조선사람들을 박대하고 탄압하였다.

이런 때에 철주동생이 고려의사자격을 가지고있는 림춘추동무를 데리고 서규오의 부대에 찾아갔다.

《두령님병이 심하다기에 문병을 하러 왔습니다.》

철주가 류창한 중국말로 깍듯이 인사를 하였지만 서규오는 거들떠보지 않았다. 조선사람은 보기도 싫고 조선사람들과는 말조차 하기 싫다는것이였다.

《두령님병을 떼볼가 하여 용한 의원 한분을 데리고 왔는데 한번 치료를 받아보지 않겠습니까?》

철주가 다시 이런 말을 해서야 서규오는 조금 귀맛이 당겨 용한 의원이라면 진찰을 한번 받아보자고 하였다. 그는 림춘추동무의 침을 며칠동안 맞고나서 편두통때문에 죽을것같았는데 이제는 림의원덕으로 골통속에 숨어들어왔던 잡귀를 쫓아버렸다고 하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이것이 인연이 되여 철주는 서규오부대에 눌러앉아 반일병사들과의 사업을 합법적으로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자력갱생은 자주의 혁명정신

자력갱생은 어떤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자기 나라 혁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 힘으로 끝까지 수행해나가려는 자주의 정신이다.

자력갱생이 자주의 정신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자주성이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라는 주체의 원리에 기초한 사상이기때문이다.

자주성이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인 동시에 나라와 민족에 있어서도 생명이라는것은 주체사상이 밝힌 중요한 내용이다.

자주성은 자주독립국가의 첫째가는 징표이며 나라와 민족의 제일생명이다. 정권이 있어도 자주성이 없는 나라는 사실상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으며 자주성이 없는 민족은 식민지예속과 노예적굴종의 처지를 면할수 없다. 어떤 민족이든지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나라의 독립과 존엄을 지킬수 있으며 민족의 행복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존엄을 지키고 주권국가로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인민대중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지니고 시련과 난관을 자체로 헤쳐나가야 한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벌어지며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생명도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하나로 련결되여있다. 나라와 민족이 남에게 예속되면 인민대중도 노예의 처지를 면할수 없고 자주성을 실현할수 없게 된다.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고립압살책동으로 인한 극악한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조국인민들이 사회주의한길로 곧바로 걸어가고있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가장 귀중한것으로, 생명으로 여기기때문이다.

이처럼 자력갱생의 정신은 자주성이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라는 원리에 기초한 혁명정신이며 바로 여기에 자력갱생이 자주의 혁명정신으로 되는 하나의 근거가 있다.

자력갱생이 자주의 혁명정신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주체적요인을 혁명승리의 근본요인으로 보는 주체적관점에 기초한 정신이기때문이다.

혁명승리에는 주체적요인과 객관적요인이 다같이 작용한다.

그러나 혁명의 승패에 결정적작용을 하는것은 객관적요인이 아니라 주체적요인이다.

혁명의 주체가 준비되면 불리한 객관적조건도 유리하게 리용할수 있고 유리한 객관적조건은 보다 유리하게 혁명에 작용되게 된다. 그러나 혁명의 주체가 준비되여있지 못하면 객관적조건이 아무리 성숙되고 유리하다고 하여도 혁명이 승리할수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주체적요인을 혁명승리의 근본요인으로 보는 주체적관점이다.

주체적요인은 다름아닌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이며 그들의 사상정신력이다. 따라서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해서는 인민대중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조선혁명의 력사적경험은 비록 객관적조건과 환경이 극난하다고 해도 혁명의 주체가 튼튼히 준비되여있으면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능히 극복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올수 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전후 벽돌 한장 성한것이 없는 조건에서 짧은 기간에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고 사회주의공업화를 빛나게 실현하였으며 지난 세기 90년대에 동유럽의 사회주의나라들이 련이어 붕괴되는 속에서도 사회주의위업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은것도 또 적대세력들의 극악한 제재압박속에서 수도건설과 농촌진흥, 지방발전과 같은 전면적국가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고있는것도 자력갱생의 정신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이처럼 주체적요인을 혁명승리의 근본요인으로 보는 여기에 자력갱생이 자주의 혁명정신으로 되는 또 하나의 근거가 있다.

본사기자 김대철

일화

위민헌신의 나날에

제일 공정한 평가

인민을 위해 해놓은 일을 보실 때마다, 인민에게 안겨줄 창조물을 대하실 때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늘 하시는 물음이 있다.

인민이 좋아하는가.

주체102(2013)년 6월 창성군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곳에 꾸려진 창성각을 돌아보실 때였다.

창성각이 희한하게 발전하였는데 한번 잘해놓았다고 하여 자만하지 말고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데 대하여 당부하신 그이께서는 1층 1호식사실에 들리시였다.

식사실을 둘러보신 그이께서는 지금 식사실들이 비여있는데 인민들이 식사를 할 때 여기에 왔더라면 더 좋았을걸 아쉽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어 식사실에서 창성각의 운영정형과 인민들의 반향에 대하여 료해하신 그이께서는 인민들이 아주 좋아한다는데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는 만족하신 어조로 일군들의 사업에 대한 제일 공정한 평가는 인민들의 목소리라고, 인민들이 좋다고 하면 다른 평가가 더 필요없다고, 일군들은 무슨 일을 하나 해도 인민들이 좋아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모든 평가의 기준

주체104(2015)년 1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을 찾으시였다.

여러 생산공정을 돌아보시던 그이께서 어느한 작업장에 들어서시였을 때 공장일군은 생산된 제품을 가리켜드리며 이 식료품을 인민들이 좋아한다고 말씀드리였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이 좋아한다니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인민들이 좋아하면 좋은것이라고, 모든 평가의 기준은 인민들의 평가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인민들이 좋아하는 식료품들이 꽝꽝 생산되여 이렇게 가득 쌓여있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볼수록 흐뭇하다고, 정말 보기 드문 희한한 풍경이라고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그해 10월 큰물피해를 가시고 사회주의선경마을로 일떠선 라선시 선봉지구 백학동(당시)을 찾으시였을 때에도 그이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살림집내부마감공사를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새로 건설한 살림집들에서 살게 될 인민들이 좋다고 하여야 진짜 건설을 잘한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인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멀고 가까운 인민이 따로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함경북도 경성군 중평리에 대규모온실농장을 꾸리실 구상을 안으시고 이곳을 찾으신 날은 주체107(2018)년 7월중순이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현지에 나가시여 부지를 직접 료해하시고 웅대한 온실농장건설전망계획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광활한 대지를 바라보시며 여기에 100정보의 온실농장을 건설하면 멋있을것이라고, 이만한 온실면적이면 도내인민들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수 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오늘 정말 기분이 좋다고, 이렇게 인민을 위한 보람있는 일을 하나하나 찾아할 때가 제일 기쁘다고 하시며 더없이 만족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거창하고 방대한 규모의 온실농장건설이므로 인민군대가 전적으로 맡아 불이 번쩍 나게 해제껴야 한다고 하시면서 건설을 맡아할 인민군부대들과 건설지휘부를 파견하도록 하시였으며 건설사업을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였다.

다음해 10월 완공단계에 이른 건설장을 찾으시여 선진적인 남새재배기술과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수확고를 높이고 생산을 활성화함으로써 도내인민들이 농장덕을 단단히 보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해 12월 3일 훌륭히 일떠선 중평온실농장 조업식에 몸소 참석하신 그이께서는 지리적으로 멀고 가까운 곳은 있어도 자신의 마음속에는 멀고 가까운 인민이 따로 없다고, 온실농장이 함경북도인민들의 식생활에 이바지한다면 더 바랄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 * *

조선-로씨야, 승화발전되는 친선협조관계

세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력사의 검증속에서 다져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는 백년대계의 전략적관계로 더욱더 승화발전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난해 9월 로씨야련방을 방문하신것은 조로관계발전의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한 사변적계기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동지역의 아무르주에 위치하고있는 워스또츠느이우주발사장에서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와 력사적인 상봉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방문에 특별히 깊은 관심을 돌린 뿌찐대통령은 국가사업전반을 령도하는 바쁜 속에서도 모스크바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방도시에까지 찾아와 중요한 우주발사기지에 대한 성의있는 참관을 직접 조직하고 함께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와 뿌찐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최고수뇌분들께서는 두 나라사이의 고위급래왕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의 다방면적인 교류협력을 심화시켜 친선단결과 협조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고 호상신뢰를 증진시켜나갈데 대하여 론의하시였다.

회담에서는 호상 관심사로 되는 중요문제들에 대한 폭넓고 깊이있는 의견교환이 진행되였으며 공동의 노력으로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를 도모하고 종합적이며 건설적인 쌍무관계를 계속 확대해나갈데 대하여 합의되였다.

이어 진행된 단독회담에서 조로수뇌분들께서는 강대한 국가건설의 전략적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방면에서 이룩되고있는 괄목할 성과와 건설적인 협조경험, 국가부흥과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를 위한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들을 나누시였다.

또한 인류의 자주성과 진보, 평화로운 삶을 침탈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위협과 도발, 강권과 전횡을 짓부시기 위한 공동전선에서 두 나라사이의 전략전술적협동을 더욱 긴밀히 하고 강력히 지지련대하면서 힘을 합쳐 국가의 주권과 발전리익,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 국제적정의를 수호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중대한 문제들과 당면한 협조사항들을 허심탄회하게 토의하시였으며 만족한 합의와 견해일치를 보시였다.

세계의 커다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로씨야련방방문은 전통적이며 전략적인 조로친선과 협조, 선린우호관계를 새로운 높이에로 가일층 강화발전시키고 반제자주위업수행을 위한 정의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한 사변적계기로 되였다.

조로친선관계는 2023년 9월에 진행된 력사적인 조로수뇌상봉에서 이룩된 합의의 정신에 맞게 불패의 전우관계, 백년대계의 전략적관계로 더욱 승화발전되였다.

여러 분야에서 고위급래왕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전략적의사소통을 긴밀히 하고있으며 경제와 문화분야에서도 협조와 교류를 강화하고있다.

조로 두 나라는 긴밀한 접촉과 호혜적인 협력으로 쌍무관계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국제무대에서의 호상지지와 협력도 그 어느때보다 강화되고있다.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조로친선관계를 끊임없이 확대발전시켜나가는것은 두 나라 수뇌분들의 뜻이고 확고한 의지이며 조로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지향이고 요구이다.

조로친선은 두 나라에서의 강국건설위업을 강력히 추동하며 진정한 국제적정의를 실현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강태일

자기꽃병

자기꽃병은 주체104(2015)년 8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해외동포가 드린 선물이다.

선물자기들은 붉은색바탕에 모란꽃을 형상하였다. 두점의 선물에는 각각 《국색천향》(천하절색)과 《만당부귀》(온 나라가 부귀영화를 누린다.)라는 글과 그옆에 한수의 시가 씌여져있다.

질제고를 첫자리에 놓고

평성시에 학생신발공장이 새로 일떠섰다.

현대적인 설비들로 생산공정이 꾸려진데 맞게 평성학생신발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신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주력하고있다.

공장의 일군들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평가를 창조의 기준으로 삼고 신발의 편리성과 미학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혁신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특히 류원신발공장과 원산구두공장을 비롯한 련관단위들에 대한 참관을 조직하여 기술자, 기능공들이 앞선 단위의 성과와 경험을 배우고 적극 활용하도록 떠밀어주었다.

또한 기술일군들은 기술자, 기능공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현장기술강습을 다채롭게 진행하고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보다 참신하게 해나가는 한편 생산공정기술지도서에 준하여 품평회와 기술전습을 실속있게 조직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그런 속에 공장에서는 선심풀을 자체로 개발 및 생산보장한것을 비롯하여 제품의 질제고를 위한 사업에서 전진이 이룩되였다.

공장의 일군 한성희는 《제품의 질제고에 박차를 가하여 학생들이 즐겨 찾는 신발들을 더 많이 생산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강진성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평양가죽이김공장

생산된 제품의 정밀도를 검사하고있다.

평양가죽이김공장이 개건현대화되였다.

공장은 원료투입으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생산공정이 현대적으로 꾸려졌다.

지금 공장에서는 종업원들이 맡은 설비에 정통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도록 하고있다.

직장들에서는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통한 기술학습을 강화하는 한편 기대공들이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있다. 그리고 생산공정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찾아내여 구현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내밀고있다.

그런가 하면 공장에서는 생산능력을 확장하고 수입산시약들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있다.

이에 따라 가죽이김원통과 갖풀생산설비를 비롯한 여러 설비들이 제작설치되였고 양가죽이김공정 등이 새로 갖추어졌다. 그리고 털가죽가공공정이 꾸려져 시험생산을 진행하고있다.

공장의 기술집단은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수입에 의존하던 기름빼기시약과 기름먹임시약을 비롯한 각종 시약들을 개발하여 생산정상화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밖에도 공장에서는 가죽가공과정에 나오는 부산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여러가지 생활용품들도 생산하고있다.

진공건조공정

공장에서 생산된 가죽으로 만든 제품들의 일부

지금 이곳에서 생산되는 신발, 일용, 악기용가죽들은 그 질이 높아 해당 공장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리영철

작아도 큰일하는 단위

- 평양의학대학 건강증진기술개발소에서 -

최근 평양의학대학 건강증진기술개발소에서 개발한 첨단의료설비와 약품, 기구들이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그가운데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첨단의료광학검사설비인 자동시야계와 눈질병을 진단하는 눈전기생리검사기도 있다.

이에 대하여 소장 박사 김혁은《비결은 다른데 있지 않다. 모두가 우리 개발소의 사명에 맞게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기술개발에 지혜를 합친데 있다.》라고 말하였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이 하나의 목표에 연구사들 모두가 마음과 뜻을 합치였다.

소장부터가 기술개발의 앞장에서 가치있는 연구성과를 내놓았다.

평양의학대학시절부터 《압통점에 의한 질병진단체계》를 비롯한 2건의 연구성과를 내놓아 대학생발명가로 두각을 나타낸 그였다.

그는 그때의 그 정열로 운동선수들의 과운동성근육긴장을 예방하고 외상성손상치료에 도움을 주는 살로크림을 개발한데 이어 음이온발생기, 두뇌활성안경 등을 련이어 개발하였다.

그의 연구성과는 개발소의 연구집단을 분발시키는 계기로 되였다. 이 나날에 연구집단은 적지 않은 연구성과를 내놓게 되였으며 서로의 지혜와 힘을 합칠 때 그만큼 결과도 빠르게 볼수 있다는 경험도 축적하게 되였다.

연구집단은 자기들이 거둔 성과에 토대하여 자동시야계를 개발하게 되였으며 안과림상치료에 절실히 필요한 눈전기생리검사기개발에도 주저없이 달라붙을수 있었다.

하지만 눈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생물전위를 증폭시켜 망막, 시신경, 안구운동장애질병의 진단을 과학화하는 검사기개발은 헐치 않았다.

소장을 비롯한 연구사들은 의학기술문헌들에 대한 조사와 함께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과의 토론을 거듭하였다. 한편으로는 부분품들에 대한 연구도 예견성있게 병행하였다.

실패의 쓴맛도 보고 극복하기 힘든 나날들도 있었지만 이들은 모든 애로와 난관을 딛고 일어서 끝내는 눈전기생리검사기개발에서 성공하였다.

여러가지 눈질병을 진단하는 기초진단설비인 눈전기생리검사기는 병원들에서 호평을 받았으며 주체107(2018)년 2.16과학기술상을 받았다.

성과에 자만을 모르는 그들은 그후에도 빛량자력학기술을 리용한 치료기인 휴대용혈액정화기, 관절염치료용조성물, 뇌졸중치료를 위한 주사약조성물과 그 제조방법 등도 내놓게 되였다.

뇌졸중치료를 위한 주사약조성물과 그 제조방법은 뇌혈전치료에서 다른 약물들의 사용을 줄이고 단번에 4가지 효과를 거둘수 있는 주사약인것으로 하여 사용자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개발소에서 내놓은 제품들은 특허제품으로, 여러 전시회들에서 우수하게 평가되였으며 지금까지 20여개의 발명증서를 받은 김혁소장은 2023년 최우수발명가로 선정되였다.

개발소에서는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사업들도 진행하고있다.

건강증진개발소, 비록 크지 않은 단위이지만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큰걸음을 내짚는 단위로 소문을 내고있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평

새 제품개발에 지혜를 합쳐가고있다.

은반우에 넘치는 기쁨

아름다운 평양의 대동강기슭에 청류인민야외빙상장이 자리잡고있다.

주체101(2012)년 11월에 준공된 때로부터 지난 12년간 이 빙상장에서는 기쁨넘친 인민의 웃음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얼마전 우리가 청류인민야외빙상장을 찾았을 때 이곳은 사람들로 흥성이였다.

얼음안개가 서린 속에서 스케트를 타고 앞으로, 뒤로 재치있게 지쳐나가는 처녀들이며 조약, 회전 등 기교동작들도 어렵지 않게 펼쳐보이는 청년들, 서로 손을 꼭 잡고 은반우를 조심조심 지쳐나가는 로년부부의 모습도 보이였다.

우리는 그들가운데서 열살가량 나보이는 소년과 그의 어머니인듯한 녀성에게로 다가갔다.

알고보니 모란봉구역 북새동에 사는 김향옥녀성은 아들 룡은이와 함께 매주 일요일마다 꼭꼭 청류인민야외빙상장에 와서 두시간씩 스케트를 타군 하는 애호가였다.

그는 《성격이 소심하던 우리 아들 룡은이는 스케트를 타면서부터 성격이 활달해지고 대담해졌는데 학습성적까지 높아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은반우에서 여러가지 기교를 펼쳐보이는 사람들의 모습도 안겨왔다.

빙상무용선수 못지 않게 스케트를 타는 한 처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은반우에서 마음껏 춤을 추는 빙상무용선수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휴식일과 퇴근길에 이곳에 들려 보급원에게서 걷기, 지치기, 밀기 등을 배웠습니다. 저의 스케트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가니 보급원의 열성도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빙상장의 여기저기에서 손님들에게 스케트타는 법을 배워주는 스케트보급원들에게로 따뜻한 눈길을 보냈다.

그 미소속에는 스케트애호가들에게 아낌없는 방조를 주고있는 보급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비껴있었다.

스케트보급원 림준호는 《날이 갈수록 손님들이 많아져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이 즐거운듯 얼굴에는 기쁨이 어려있었다.

이어 그는 온몸운동인 스케트타기는 남녀로소 누구나 좋아하는 운동이라고, 스케트타기를 정상적으로 하면 심장, 페를 비롯한 장기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 특히 학생소년들이 추운 겨울철에 스케트를 정상적으로 타면 뼈가 굵어질뿐 아니라 든든해진다고 하였다.

멋진 기교동작을 펼쳐보이는 청춘남녀들가운데는 은반우에서 스케트기술을 련마해가는 과정에 사랑을 맺어 행복한 가정을 이룬 쌍들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듯 누구나 찾아와 마음껏 문화정서생활을 누리며 체력을 단련하는 청류인민야외빙상장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계절 떠날줄 모르는 곳으로 되고있다.

글 본사기자 연옥
사진 본사기자 리영철

수련의 나날에 맺어진 인연으로

조선태권도위원회 태권도시범단 사범 라경훈과 만경대구역 팔골소학교 태권도소조지도교원 리숙향은 부부간이다.

5단소유자들인 이들의 연분을 태권도가 맺어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듯싶다.

라경훈과 리숙향은 12살때부터 평안남도태권도선수단에서 도를 닦았던것이다.

정확한 동작수행과 난도동작들을 어렵지 않게 수행하는 라경훈과 리숙향은 선수단의 쌍기둥으로 불리웠다.

그후 라경훈은 순천시의 어느한 태권도선수단으로 조동되여 선수생활을 하게 되였지만 국내경기들에 참가할 때마다 리숙향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되였다. 그럴 때면 그는 마음속으로 은근히 숙향이가 우승하기를 기대하군 하였다.

점차 이들은 무대를 국제경기들에로 옮겼다.

라경훈은 주체99(2010)년 벨라루씨에서 진행된 제9차 청소년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개인1단틀과 단체틀, 남자개인맞서기 51kg급경기에서 각각 1등을 쟁취하였다. 하여 대회에서 메달을 많이 획득한 선수에게만 수여하는 기술상도 수여받았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숙향은 자기 일처럼 기뻐하였다.

그러나 경훈에게 언제나 탄탄대로만 있은것은 아니였다.

주체101(2012)년에 진행된 제6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그는 중량조절을 잘하지 못하고 소심하게 경기를 운영하여 개인2단틀경기에서 3등을 하였다.

경기후 조국으로 돌아온 경훈은 다시는 도장에 들어설수 없다고 생각하며 주저앉기까지 하였다.

그때를 돌이켜보며 숙향은 《정말 그때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그에게 힘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숙향은 훈련을 하는 속에서도 경훈에게 매일 전화를 하였다. 숙향은 민족의 넋과 슬기가 깃든 태권도를 처음 수련받던 나날들과 함께 울고웃으며 넘어온 고비들에 대하여 상기시켜주었다. 그러면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더 강하다며 힘과 용기를 주었다.

조선태권도시범단 심양공연에 참가하였던 라경훈(앞줄 왼쪽으로부터 두번째)과 리숙향(앞줄 왼쪽으로부터 여섯번째)

현재 라경훈은 조선태권도위원회 사범으로, 리숙향은 만경대구역 팔골소학교 태권도소조지도교원으로 사업하고있다.

이렇게 되여 경훈은 마음속의 동요를 털어버리고 분발하였다. 그리고 경기에서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밤잠을 잊고 훈련하였다.

숙향은 그에게 훈련에 필요한 여러 기술자료들도 보내주었다.

하여 경훈은 주체103(2014)년에 있은 제7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남자개인2단틀, 남자개인맞서기 57kg급경기를 비롯한 여러 종목들에서 1등을 쟁취하였으며 또다시 기술상을 받았다.

숙향도 우리 나라 태권도시범단의 한 성원이 되여 여러 나라들에서 시범출연을 진행하였다. 한번 조약하여 5개의 목표를 격파하는 그의 난도동작들을 본 관중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며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사실 숙향의 이 특기동작에는 경훈의 노력도 깃들어있었다.

한번 조약하여 6개 목표를 격파하던 경훈은 녀자들이 힘들어하는 특기동작을 숙향이 수행할수 있게 남모르는 정열을 바쳤다. 경훈의 도움으로 숙향은 시범출연들에서 난도동작들을 원만히 수행하였다.

이들은 서로 돕고 이끌며 주체105(2016)년에 여러 나라에서 민족의 넋과 기상을 한껏 떨쳤다.

이들의 시범출연을 본 다른 나라 사람들은 조선의 태권도가 제일이라고 엄지손가락을 흔들었다.

이 나날속에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동료들은 수련의 나날에 맺어진 인연으로 가정을 이룬 이들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었다.

라경훈은 주체103(2014)년에, 리숙향은 주체108(2019)년에 공훈체육인칭호를 수여받았다.

이들은 선수생활을 끝마치고 김형직사범대학과 조선체육대학에서 배움의 나래를 펼쳤다.

숙향지도교원이 키우는 학교의 태권도소조원들은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를 비롯한 여러 경기대회들에서 태권도시범출연으로 사람들의 절찬을 받았다.

이들은 가정의 미래인 아들에게도 태권도를 배워줄 의향을 표시하였다.

글 본사기자 김슬기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따뜻한 정으로

평양시 락랑구역의 어느한 동에는 특류영예군인 윤정희녀성이 살고있다.

그의 집으로는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그들중에는 특류영예군인을 위해 지성을 바쳐가는 한 녀인도 있다.

그 녀인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5년전의 일로부터 시작되였다.

주체108(2019)년 설날 아침 윤정희녀성의 집으로는 두 처녀가 들어섰다. 한 처녀는 이미 윤정희와 친숙해진 김향숙이였고 함께 온 처녀는 초면이였다. 윤정희가 의아한 시선을 보내자 자기를 리현아라고 소개한 그 처녀는 향숙동무와 가까운 사이라고, 특류영예군인동지에 대해 듣고 만나보러 왔다고 하였다.

그때까지도 정희는 자기를 위하는 현아의 마음이 여러해가 지나도 계속 이어질줄은 생각하지 못하였다.

현아는 명절과 휴식일은 물론 퇴근길에도 들리여 약과 건강식품들을 주고 가정에 일감이 생길 때마다 자기 일처럼 도와나섰으며 작품창작에 도움이 되라고 문예도서들과 콤퓨터도 마련해주었다. 특류영예군인을 위하는 그의 진정은 가정을 이룬 후에도 변함이 없었다. 윤정희가 대학생이 되였을 때에는 학습에 필요한 참고도서들과 학용품을 마련해주었고 좋은 시들을 창작하였을 때에는 남편과 함께 출판물에 게재되도록 왼심을 쓰기도 하였다.

정희는 현아의 성의가 고마우면서도 공연히 고생을 시키는것같아 미안하기도 하여 극력 만류하였지만 그의 발걸음은 더욱 잦았다. 찾아올 때마다 집주소와 직장 등을 거듭 물어보았지만 현아는 그저 특류영예군인의 애국의 삶에 감복한 공민의 한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 소개를 하지 않고 올 때처럼 조용히 돌아서군 하였다.

두 가정사이에 오가는 정은 더욱 뜨거워졌다. 몇해후 윤정희는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있으면 현아에게 전화를 걸어 스스럼없이 터놓군 하였다. 한번은 정희가 저도 모르게 불쑥 자기가 며칠후에 달천영예군인료양소로 료양을 떠나게 된다는 말을 꺼냈던적이 있었다. 그런데 지나가는 말처럼 했던 그 한마디를 스쳐보내지 않고 현아가 지극한 마음을 기울일줄이야.

떠나는 날 아침 현아가 불쑥 찾아왔던것이다. 그는 《물론 간호자가 동행하고 료양소에서도 잘 돌봐주겠지요. 하지만 어쩐지 마음이 놓이질 않는구만요.》 하며 려행에 편리한 차를 보장하고 직접 목적지까지 따라가서 방을 골라준 다음에야 자리를 떴다.

료양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주체113(2024)년 설날 아침 윤정희는 리현아의 손을 꼭 잡고 동무의 그 불같은 정과 사랑이 나를 고무해주고있다고, 나는 동무를 꼭 알아야 하겠다고 절절히 말하였다.

그때에야 윤정희는 그가 민족유산보호국의 일군이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윤정희녀성이 비록 동생벌되지만 동무에게서 많은것을 배우게 된다고 진정을 터놓을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하군 했다.

영예군인의 고귀한 칭호를 빛내일 마음을 안고 수십년세월 전국각지의 건설장들을 찾아 심금을 울리는 시랑송과 선동으로 건설자들을 고무추동한 윤정희녀성의 그 높은 정신세계에 비추어보면 자기는 아직 배울것이 너무나 많다고.

현아는 사랑과 정으로 이어진 그 길에 아들 준기도 내세웠다.

리현아가정이 윤정희녀성과 혈연의 뉴대를 이어온 나날은 우리에게 말해주고있다.

아름다운 덕과 정은 의무감만으로는 흐를수 없다는것을.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모란봉기슭의 새 약국

지금 조국의 시, 군들에서 표준약국건설이 본격화되고있다. 그 첫 실체가 모란봉구역의약품관리소 종합약국이다. 2층으로 된 약국에는 판매구역과 기초검사구역, 상담 및 처방구역, 약품분석구역, 보관구역, 제조구역 등으로 나뉘여져있다.

고려약초매대에는 인삼, 만년버섯 등 수백가지의 귀한 약재가 들어있는 약초서랍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있다.

판매원 정은순의 말에 의하면 매 사람의 병증상과 체질에 맞는 고려약들을 첩약과 탕약, 가루약의 형태로 봉사하고있는데 손님들 누구나 좋아한다고 한다.

이곳에는 구역주민들의 건강상태가 구체적으로 입력되여있는 전주민건강관리체계가 확립되여있어 모란봉구역안의 전쟁로병들과 영웅, 영예군인, 장수자, 구급환자, 만성환자들은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필요한 약품을 신속정확히 봉사받고있다.

고려약초매대에서

약국의 제조실, 검사실, 상담실도 높은 수준에서 꾸려져있다.

제조실에서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선진기술로 만든 자동탕약기로 처방에 따라 고려약을 봉사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검사실에서는 최신식설비로 과학적인 검사와 진단도 진행하고있다.

약국장 리은경은 약국에서는 상담실에서 찾아오는 손님들과 마주앉아 그들의 건강상태와 병적증상 등을 구체적으로 관찰하고 치료방안도 친절하게 알려주고있다고 한다.

24시간의료봉사를 진행하는 단위의 특성에 맞게 약국에는 여러가지 의료봉사를 진행할수 있는 로보트도 있다.

이뿐이 아니다. 약국에는 실시간온도감시체계가 도입된 약품창고들도 있어 일단 비상방역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신속히 대처할수 있는 물질적조건이 최상의 수준에서 마련되여있다.

약품들이 품종별, 질병별로 전시된 진렬대며 사람들에게 약국의 봉사내용과 해당 약품의 용도, 금지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줄수 있는 안내도, 의료용선동진렬장과 보건위생학적으로 설치된 위생통과실, 장애자위생실도 갖추어져있다.

모란봉구역 월향동에서 사는 한수향은 《약품들의 가지수가 많고 봉사수준도 높을뿐 아니라 약국의 모든 요소요소가 편리하여 처음 찾는 사람들도 필요한 의료상봉사를 받을수 있다. 모란봉구역의약품관리소 종합약국은 인민의 건강을 첫자리에 놓는 사회주의보건제도가 낳은 또 하나의 창조물이다.》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글 본사기자 연옥
사진 본사기자 리영철

상담실에서

봉사홀에서

소원을 이룬 소녀

평양시에 있는 모란봉구역 전승고급중학교 학생 김진미는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한 외동딸이다. 자식의 성장에 많은 관심을 돌려온 부모의 열성으로 하여 소학교시절 진미는 여러 소조에 다니였지만 좀처럼 재미를 붙이지 못하였다.

부모의 관심과 기대가 점점 식어가던 소학교 졸업반때였다.

직장에서 퇴근한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는것도 모르고 진미는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있었다. 슬며시 보느라니 딸애가 붓글쓰기에 여념이 없었던것이다. 부모가 바라는 소조들에는 도무지 취미를 붙이지 못하였던 진미가 열정적으로 붓을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생각이 많았다.

사실 자기처럼 수학에 취미를 가지던가, 안해처럼 의사로 되길 바랐지만 부모의 주관적의사를 강요할수는 없었다.

이날 저녁 진미의 부모는 진지한 토론끝에 딸에게 서예를 시켜보기로 하였다. 소학교를 졸업하고 초급중학교에 입학하였을 때 진미의 어머니는 딸을 데리고 학교의 미술교원을 찾아갔다.

이렇게 되여 진미는 미술소조에서 서예를 배우게 되였다. 진미는 미술교원인 김은별에게서 서예와 함께 소묘와 수채화를 배우며 재능을 키웠다. 이러한 소조생활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에는 진흙으로 친한 동무의 모습을 생동하게 형상하여 동무들과 미술교원을 놀래웠다. 진미에게서 미술가적인 섬세성과 침착성, 공간에 대한 정확한 표상을 발견한 은별교원은 그를 공예가로 키울 결심을 하게 되였다.

그때부터 교원은 진미를 데리고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조각, 공예축전과 구역과 시적으로 진행되는 미술전시회장들을 자주 참관하였다. 이 과정에 진미는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과 동년배들이 만든 조각과 공예품들을 보면서 한번 작품을 창작하여 축전에 참가해보고싶은 충동을 느끼였다.

진미는 짬만 있으면 자체로 조각도 빚어보고 무엇인가를 종이에 그려도 보았다. 그러나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안타까워하는 진미를 보며 교원은 왜 그러는가고 물었다.

《선생님, 나도 축전에 참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것을 창작해야 할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교원은 아주 좋은 생각을 하였다고 하면서 적극 도와나섰다. 공예에 대한 리해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도서들과 화첩 등을 구해주기도 하였고 그를 위한 과외교수안도 작성하여 적용하였다. 미술적인 취미가 남다른데다 과외지도교원의 구체적이며 방법론적인 지도로 하여 진미의 실력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갔다.

하여 진미는 어미곰앞에서 재롱을 부리는 아기곰을 형상한 석고조각을 만들고 그 이름을 《재롱》이라고 달았다. 이 작품은 주체111(2022)년 10월에 진행된 제3차 전국조각, 공예축전에서 입선하였다.

그후 은별교원은 큰 선에서 방향을 그어주면 세부까지도 깐깐히 생동하게 재현해낼줄 아는 진미에게 도자공예를 배워주었다.

진미는 세상에 잘 알려진 고려청자기의 우수성을 파악하는 한편 도자공예기법들을 하나하나 체득해나갔다.

진미는 선생님과의 토론끝에 다음번 축전에 씨앗공예작품을 만들어내놓기로 하였다. 고려청자기의 우수성의 하나인 비취색을 낼수 있는 씨앗으로 록두를 선정하였고 콩과 백미, 검은찹쌀 등을 재료로 하여 국수, 국조, 국화를 형상할 구상을 하였다. 그리고 상감장식효과를 얻기 위해 씨앗을 단색으로 박아넣도록 하였다.

씨앗공예작품창작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지만 진미는 침착하게 씨앗들을 도자기에 붙여나갔다.

시일이 흐르는 가운데 씨앗공예 《국수, 국조, 국화장식꽃병》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냈다.

이렇게 만든 공예품은 지난해에 진행된 조선로동당창건 78돐경축 제4차 전국조각, 공예축전에서 기발한 착상과 섬세한 기교를 보여주는것으로 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참관자들은 이 작품을 중학생이 만든것이 옳은가고 하면서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진행된 축전에서 증서와 금메달을 수여받을 때 진미는 온 세상을 독차지한듯싶었다고 한다.

진미의 어머니 리영순녀성은 《사람들은 나를 보고 훌륭한 딸을 두었다고 말한다. 그때마다 나는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하에서 자식의 꿈이 꽃펴났다고 이야기하군 한다.》라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글 본사기자 김일봉
사진 본사기자 리영철

민족적향취가 넘치는

월향전시관

평양시 모란봉구역에는 평양의 자랑인 애국녀인이였던 계월향의 이름을 단 월향전시관이 있다.

이름만 들어도 민족적색채가 짙은 이곳은 우리 인민들은 물론 평양을 방문하는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전시관에는 민족성을 반영한 여러가지 공예품들과 개성고려인삼제품, 미술작품 등이 전시되여있다.

조선의 특산인 개성고려인삼제품들과 조선력사이야기나 풍속을 담은 민속그림, 첫날옷을 입은 인형, 장식고리, 초물제품, 각종 민예품들이 인기를 끌고있다.

국기를 형상한 여러가지 형식의 휘장들과 국가상징물주제의 그림, 화첩, 도서들도 있다.

민예품들의 대부분은 전시관에서 만든 제품들이다.

월향전시관은 오래전부터 민속전통을 반영한 여러가지 공예품을 잘 만들어 봉사하여오고있다.

여러 차례 전시회들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전적을 가지고있는 이곳에서는 시기마다 특색있는 제품들을 전시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이곳에서는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에게 양복과 민족의상을 비롯한 피복제작봉사도 해주고있다.

전시관에는 류다른 사진첩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곳에서 조선치마저고리를 해입은 로씨야명가수의 사진도 있고 재중동포들의 사진도 올라있다.

판매원들은 손님들에게 능란한 외국어로 친절하게 봉사하고있다.

전시관을 찾은 재중동포들

민족적색채가 짙은 여러 종류의 기념품들이 전시되여있다.

평양방문을 추억할수 있는 기념품을 마련하고있는 로씨야관광객들

많은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은 월향전시관이야말로 민족적향취에 푹 젖어들게 하고 조선인민의 유구한 민족전통에 대해 깊은 인상을 새겨주는 곳이라고 하면서 이곳에서 기념사진을 즐겨 찍는다.

얼마전에도 로씨야관광객들은 이곳을 찾아 사진을 찍었으며 평양방문을 추억할수 있는 기념품을 마련하였다.

선우금옥책임자는 《우리는 민예품들을 더 성의있게 만들어 봉사함으로써 손님들이 기념품들을 보면서 아름다운 평양방문의 나날을 추억할수 있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글 본사기자 김승기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고향소식

새 거리의 주인들을 찾아서

수도 평양에 전위거리가 일떠서 수많은 시민들이 새 거리, 새집의 주인으로 되였다.

얼마전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지면에 담기 위하여 이곳에 대한 취재길에 올랐다. 우리가 평양시 형제산구역의 소재지인 서포지구에 들어서니 전위거리의 모습이 안겨왔다. 80층, 60층, 40층살림집을 비롯한 다양한 형식의 초고층, 고층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로 장관을 펼친 거리는 볼수록 황홀하였다.

이곳에서 우리가 먼저 찾은 곳은 전위2동의 고층살림집이였는데 일요일이여서인지 현관앞 공원에는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좋아라 뛰여다니는 아이들, 살림집을 배경으로 저마끔 손전화기를 꺼내들고 사진을 찍는 청춘남녀들, 시원하게 뻗어간 도로를 따라 즐비하게 늘어선 살림집들과 편의봉사시설들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우리는 이곳에서 새집에 입사한 종업원들을 축하해주기 위

전위거리 새집에서

전위2종합상점에서

해 왔다는 평양화력발전소의 한 일군을 만나보았다. 그는 새 거리가 일떠설 때마다 나라에서는 우리 로동계급을 제일먼저 불러주고있다고 하면서 이번에도 발전소의 많은 로동자들이 새 살림집에 보금자리를 폈다고 하는 것이였다.

그의 말대로 살림집들을 돌아보니 적지 않은 기업소종업원들이 3칸짜리 집에서 살고있었다. 그리고 기업소의 종업원들만이 아니라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평양종합인쇄공장을 비롯한 공장, 기업소들의 로동자들도 새집의 주인으로 되였다.

살림방들이 넓은데다가 전기난방이 되여있고 부엌과 세면장도 가정주부들의 마음에 꼭 들게 꾸려져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는것이 누구나의 한결같은 심정이였다.

이어 우리가 들린 곳은 전위2동 38인민반의 13층 4호였다.

집주인인 지정희는 《지난시기 신문과 방송, TV를 통해 새집들이소식에 접할 때마다 은근히 부러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에게도 이런 희한한 새 살림집이 차례졌습니다. 이 고마움을 무슨 말로 표현하겠습니까.》라고 감동을 표시했다.

우리는 이런 감격에 젖은 목소리를 80층살림집과 나란히 서있는 60층살림집 주민들에게서도 들을수 있었다.

새집이 너무 좋아 웃고 떠드는데 제일먼저 구역안의 일군들이 오고 또 살림집건설을 맡아한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련이어 찾아와 불편한 점이 없는가를 확인하며 축하해주었고 진료소의 의사들이 혹시 집을 받고 흥분하여 혈압이라도 높아지지 않았는가 해서 찾아오는데 그 모습들에서 더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였다.

우리는 전위거리의 상징건물로 되고있는 80층살림집으로 향했다.

80층살림집의 12층 6호의 주부인 김은정은 김연주재중동포의 조카였다.

김은정녀성은 자기는 물론 동생 김예성이도 전위2동에 새집을 받았다고 하면서 얼마전 집을 돌아본 김연주고모가 세상에 이런 좋은 집을 평범한 너희들에게 무상으로 주는 나라는 오직 사회주의조국밖에 없다고 말하였다고 하였다.

이어 우리는 전위거리에 있는 학교와 유치원, 종합진료소, 상점 등도 돌아보았다. 그 어디를 가보아도 나라의 고마움에 대한 이야기였다.

형제산구역 전위2유치원에서는 새집을 받은것만도 고마운데 집앞에 훌륭한 유치원까지 지어주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는 부모들의 마음속진정을 들을수 있었고 종합진료소를 찾으면 현대적인 치료설비를 갖춘 진료소가 일떠서 의료봉사사업을 더 잘할수 있게 되였다는 의료일군들의 감사의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다.

그뿐이 아니다. 봉사단위들에 가면 새집에 입사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한 점이 있을세라 공업품과 식료품, 과일과 남새들을 충분히 보장해주고있다는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도로에 나서니 초고층, 고층살림집들과 학교와 진료소, 편의봉사시설들이 즐비하게 솟아오른 이 전위거리가 바로 인민의 리상거리라는 생각이 더 갈마들었다.

우리는 후더워지는 마음을 안고 전위거리에 대한 취재를 마치였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조선중앙통신

전위2유치원에서

전위거리종합진료소에서

영화배우로 30여년

지난 5월중순 어느날이였다.

그날 고삼혜녀성은 예순네번째 생일을 맞으며 처녀시절부터 30여년간 영화예술부문에서 함께 일해온 동료들과 오붓이 모여앉아 회포를 나누었다.

《삼혜동무야 정말로 성공한 배우라고 말할수 있지. 인민이 기억하고 사랑하는 배우라는 그자체가 가장 값높은 평가라고 생각해.》

70나이에 이른 인민배우 서신향녀성의 이 말에 동료들은 저마다 머리를 끄덕이였다.

고삼혜녀성은 깊은 호수마냥 그윽한 두눈에 미소를 띠운채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한생토록 영화예술인이라는 긍지를 가슴속깊이 간직하고 살아온 그는 자기의 인생길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주체49(1960)년 5월 일본 도꾜도에서 출생한 그는 조선학교에서 우리 말과 글, 력사와 지리를 배우며 성장하였다.

총련 상공회 부회장인 아버지 고희섭의 맏딸로서 애국적인 가정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한 그는 18살되던 해인 주체67(1978)년에 180차 귀국선에 몸을 실었다.

그에게는 봄무지개와 같이 아름다운 꿈이 있었다. 조국에 가서 영화배우가 되는것이였다. 그 꿈을 간직하게 된 동기가 있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조선예술영화 《꽃파는 처녀》가 방영된적이 있었는데 재일동포들은 물론이고 일본인민들속에서도 반향이 컸다.

조국의 영화에 심취되기 시작한 그는 동무들과 함께 도꾜의 영화관들에서 상영되는 조선예술영화 《성장의 길에서》, 《사과딸 때》를 몇번이나 관람하였다.

평소에는 영화감상에 그닥 흥미를 가지고있지 않았던 고삼혜였지만 사상예술성이 높은 영화들을 보고나서부터 조국에 가서 영화배우가 되고싶다는 의향을 부모들에게 거듭 아뢰였다.

사랑과 믿음, 기대가 어린 아버지, 어머니의 고무속에 그의 귀국은 인츰 실현되였다. 뒤이어 그는 자기의 소원대로 평양연극영화대학 배우학부에서 공부하였다.

고삼혜의 봄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것은 태여나서부터 18년동안 일본에서 살았던 까닭에 그의 조선어발음상태로는 무대화술을 원만히 할수 없었던것이였다.

열심히 발음훈련과 화술공부를 하였지만 그는 대중앞에 나서서 연기를 할 때마다 자신감이 없이 늘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를 내군 하였다.

학부의 강좌장, 실습지도교원은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하며 고삼혜가 주저앉을세라 힘과 고무를 주었고 그의 화술지도에 품을 넣었다.

어떤 날에는 아침에 깨여나서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강의받을 때만 제외하고 줄곧 한문장만 곱씹어 반복하여 말한적도 있었다.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그의 배우연기와 화술형상수준은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자신도 놀라우리만치 비약적으로 올라서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해가 흘러 고삼혜는 졸업을 한달 앞두게 되였다.

조선4.25예술영화촬영소에서 배우선발을 나왔던 배우단단장은 20여명의 졸업생들가운데서 유독 고삼혜만을 선출하였다.

대학안의 수많은 교직원들과 학생들모두가 깜짝 놀랐다. 그들은 어떻게 그토록 키도 작고 체소하면서도 소박하고 단정하여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아 배우적인 인물과 매력이 없다고 생각했던 고삼혜가 배우선발 첫 순위에 당당히 오를수 있었는가를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도 평양연극영화대학의 학생들속에서 일화로 전해지고있으며 후배들에게 노력끝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 진리를 깨우쳐주고있다.

그는 어느한 단편영화에 단역배우로 출연하여 만사람에게 첫선을 보이였다.

이어 예술영화 《네거리초병》, 《고향으로 돌아온 련대장》, 《려단장의 옛 상관》에 출연한 그는 특색있는 화술과 인물형상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였다. 예술영화 《아버지의 마음》에서 애기엄마인 부기원역을 맡게 된 그는 조금도 마다하지 않고 한살된 첫아들을 안고 영화에 출연하기도 하였다.

그는 배우생활의 나날 영화예술인의 가장 높은 명예와 평가는 인민이 기억하고 인민의 사랑을 받는것임을 새겨안으며 성실하게 역형상창조에 림하여왔다.

고삼혜와 그의 남편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어제, 오늘 그리고 래일》과 예술영화 《법동농민》을 비롯한 여러 영화, TV련속극들에서 특색있는 연기술을 보여주었으며 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 《곡절많은 운명》, TV련속극 《계월향》, 《방탄벽》 등에서는 류창한 외국말대사형상도 맡아하였다.

온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하고있던 어려운 시기에 그는 갓 조직된 국립희극단 배우로 조동되였다.

조용하면서도 사색적인 성격인 그는 희극적인 역형상을 찾아내기 위해 항상 성격탐구를 깊이있게 하여 촌극《전화번호가 바뀐탓에》에서 사람들에게 기쁨과 랑만을 더해주었다.

영화와 함께 흘러온 그의 인생길에는 인민의 사랑을 받는 인기배우인 남편 리원복이 언제나 함께 있었다.

조선예술영화 《명령—027호》에 출연하였던 처녀시절의 고삼혜는 조선인민군 정찰병역을 수행한 리원복과 영화제작사업에 마음을 합쳐가면서 청춘의 사랑을 무르익히였다.

오늘 고삼혜녀성은 조선4.25예술영화촬영소 배우단 단장인 남편의 예술창조사업을 적극 뒤받침해주며 영화예술인의 긍지속에 행복한 인생을 보내고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있다.

《나는 꿈을 이루었다. 기쁨과 만족이 어린 미소속에 자기의 인생길을 뒤돌아볼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글 본사기자 연옥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모란봉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마치 모란꽃과도 같이 생김새가 기묘하고 특이하여 예로부터 평양의 자랑으로 일러온 모란봉.

이곳에는 우리 나라의 오랜 력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고적들이 많다.

얼마전 우리는 모란봉의 력사유적들을 찾아가는 관광객들과 기행길에 올랐다.

우리를 태운 관광뻐스는 평양역앞 주차장을 출발하여 영광거리, 승리거리, 창전거리를 거쳐 옥류관앞을 지나 모란봉기슭에 다달았다.

모란봉관광사 관광안내원은 여기에서부터 모란봉산책이 시작된다고 말하고는 앞장에서 우리를 이끌었다.

새들의 지저귐소리를 들으며 아름드리나무들사이로 뻗어나간 산책길을 걷느라니 모란봉의 독특한 여름정서가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었다.

한여름의 무더운 대기를 순간에 날려보내며 시원스럽게 쏟아져내리는 모란폭포며 푸른 하늘가에 높이 떠있는듯한 평화정, 어린 말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청춘남녀들, 꽃밭에서 시간가는줄 모르는 처녀애들…

실로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모란봉의 여름풍경이였다.

소담한 단풍나무가지가 드리워진 애련정, 송가정이며 크고 작은 못들을 보며 산책길을 이어가는 우리의 가슴에 소나무의 싱그러운 향기가 흘러들었다.

둘러보니 을밀대주변의 푸른 솔숲이 한눈에 안겨왔다.

예로부터 을밀상춘이라고 불러온 을밀대의 봄경치가 평양8경의 하나로 유명하다고 전해오지만 한여름날 을밀대의 경치 또한 절경이였다. 우리 민족고유의 건축형식인 을밀대의 합각지붕은 산수수려한 모란봉의 풍치와 어울려 더욱 우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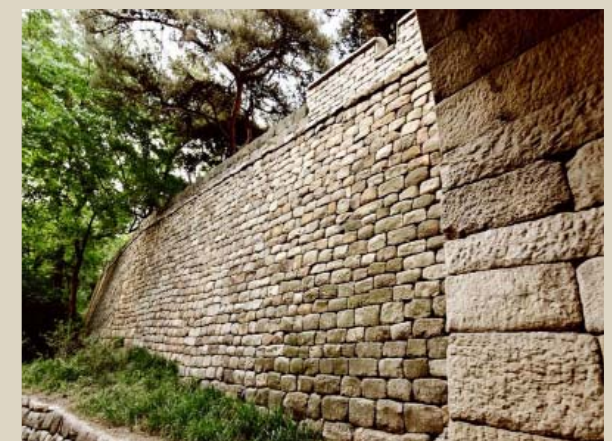
이때 관광안내원이 《여기 모란봉은 을밀대를 비롯한 력사유적들과 함께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설도 많아 더욱 유서깊습니다.》라고 이야기끈을 슬슬 풀어나가기 시작하였다.

모란봉에는 고구려시기의 유적들인 내성, 외성을 비롯하여 을밀대, 최승대, 칠성문, 청류정, 부벽루, 현무문, 동암문 등이 있다. 그가운데서 을밀대와 최승대는 외적을 감시하고 군사들을 지휘하던 장대였으며 현무문과 칠성문은 성문이였다.

안내원은 고구려시기 외래침략자들을 용감하게 쳐물리치고 아름다운 조국강토를 지켜낸 우리 선조들의 애국적투쟁을 길이

칠성문

평양성의 일부

평양성의 바깥성벽은 금수산의 모란봉을 북쪽끝으로 하고 서남으로 을밀대, 만수대를 타고 보통강을 따라 뻗다가 보통강과 대동강이 합치는 목에서 동북으로 꺾이여 대동강을 거슬러 대동문을 지나 다시 모란봉에 이르렀는데 그 둘레는 약 16㎞이다.

을밀대

을밀대란 웃미루터(웃밀이언덕)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이밖에 옛날 《을밀신선》이 자주 하늘에서 내려와 여기서 놀았다는데서 또한 고구려시기 을밀장수가 이곳을 지켜 싸웠다는 전설에 의하여 전해진 이름이기도 하다.

전하는 《을밀장수》에 대한 전설과 《행복의 문-칠성문》에 대한 전설 그리고 옛날 을밀선녀들이 경치좋은 이곳에 내려와 놀았다고 하는 《을밀선녀》에 대한 전설에 대하여서도 구수하게 이야기해주었다.

정가로운 모란봉의 정서에 심취되여있던 우리가 을밀대를 내릴 때였다. 화판을 앞에 놓고 부지런히 붓을 옮기는 학생소년들의 모습도 류다르게 안겨왔다. 그 모습에 이끌려 가까이 다가가보니 그들은 을밀대의 전경을 열심히 화폭에 담고있었다.

관광객들중 한 중년이 그림을 그리고있는 소년의 뒤에 한참 서있다가 잠시후 《네가 그린 <을밀대의 여름>이 참 훌륭하구나. 전문가인 나도 놀라울 정도이다. 그런데 이 단청부분의 색들을 좀더 선명하게 그려야 할것같다.》라고 이야기하는

현무문

부벽루

청류정

것이였다.

알고보니 그는 지난 수년간 모란봉의 력사유적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였다는 만수대창작사 조선화창작단 미술가였다.

식물이 자라는데 유리한 모란봉에는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향나무, 복숭아나무, 살구나무, 배나무, 밤나무와 갖가지 꽃식물들도 특색있고 보기 좋게 골고루 배치되여있었다.

바로 이렇듯 아름다운 모란봉의 곳곳에는 그네터, 씨름터, 널뛰기터가 있어 민속명절과 일요일을 계기로 다채로운 민족체육경기들도 진행되군 한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을밀대에 올라서니 대동강의 푸른 물결과 함께 아름다운 평양의 전경이 한눈에 안겨왔다.

오랜 력사와 문화가 깃든 평양에 이처럼 아름다운 모란봉이 솟아있다는것은 우리 민족의 자랑이 아닐수 없었다.

뿌듯한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부벽루며 최승대를 돌아본 우리는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개선청년공원유희장에서 즐거운 저녁시간을 보내였다.

글　본사기자 연옥
사진 본사기자 리철

전금문

동안문

최승대

개간된 《록색바다》

언제인가 나는 우리 나라를 방문한 로씨야의 시인과 함께 조선서해기슭의 간석지를 지나가게 되였다. 해빛에 눈부시는 푸른 수평선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던 시인의 입에선 탄성이 터져나왔다.

《장관이요! 벌판과 바다가 입맞추는 광경이요! 로씨야에는 <개간된 처녀지>가 있는데 조선에는 개간된 <록색바다>가 있군! 인간의 힘이란 참!》

그는 숄로호브의 소설제목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감탄을 련발하더니 나에게 의문어린 시선을 자주 던지는것이였다.

나는 그의 의문이 십분 리해되였다. 유럽사람들 특히 바다와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는 간석지란 개념이 좀 편견적이다. 그들은 이전에 바다였던 지대가 지각변동으로 토양에 염기가 0. 5~1%정도 있는 황무지 또는 반황무지, 초원지대를 간석지로 인식하고있다. 실지 지구의 내륙지방을 지날 때면 희끗희끗한 염기성땅, 방목지대를 보게 된다.

그렇기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심한 조선서해의 미세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있다.

나는 우리 나라에서의 간석지개간에 대해 그가 깊이 알도록 하기 위해 수십년간 간석지를 건설해온 나이지숙한 전문가와 만나게 해주었다.

간석지전문가는 시인에게 간석지란 한마디로 말하여 밀물때에는 바다물에 잠기고 썰물때에는 드러나는, 소금기가 있는 바다가의 개흙이 깔린 땅이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것이였다.

조선은 자연지리적으로 산이 많은 나라여서 부침땅이 적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본제국주의자들과 무장투쟁을 하시던 간고한 나날에도,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대에 백송리에 자리잡고있던 **김일성**종합대학을 찾으셨을 때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을 창립하시던 시기에도 간석지건설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1960년대에 들어와 조선에는 간석지개간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소들이 나왔으며 1970년대에는 수많은 간석지들이 생겨났다.

그의 이야기는 거의 한시간이나 계속되였는데 시인은 큰 감동을 받은것같았다.

《당신들은 바다의 진짜정복자들입니다. 조선사람들은 한치의 땅을 지켜 원쑤들과 싸울줄도 알고 평화시기에는 바다를 막아 대지를 넓혀갈줄도 아는 진짜영웅들입니다. …》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오늘도 조국땅에서는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대자연개조사업이 진함없이 더욱 열기를 띠고 진행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2010년 완공된 대계도간석지를 찾으시여 바다의 정복자들의 위훈을 찬양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경지부족과 먹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간석지건설과 그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강력한 건설력량도 꾸려주시면서 이 사업에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고계신다.

수령과 사상과 뜻도 숨결도 같이하는 조국의 영용한 인민들은 조선서해연안의 대각도, 대계도, 홍건도, 대수압도, 양촌, 석화, 월도, 각회도, 애도 등 많은 간석지건설장들에서 로력적위훈을 창조하고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주체101(2012)년 2월 간석지건설자들이 조국과 인민이 영원히 기억할 위훈의 창조자들이라는 위대한 장군님의 최상의 평가를 잊지 않고 조국의 대지를 끝없이 넓혀나가기를 바라시면서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에 유화 《대계도간석지의 저녁》을 보내주시였다.

그이의 한없는 믿음에 고무된 간석지건설자들은 2012년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곽산간석지 2계단건설과 대계도간석지내부망공사를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오늘도 애도간석지와 내장도간석지, 대수압도간석지와 양촌간석지, 석화간석지와 월도간석지, 각회도간석지 등 조선서해연안의 간석지건설장들에서 당의 대자연개조구상을 높이 받들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인민군군인들과 간석지건설자들이 날마다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얼마전에도 나는 개간된 홍건도간석지벌에 펼쳐진 흐뭇한 벼바다를 목격하면서 조선로동당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이 가까운 몇해안에 반드시 실현될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히게 되였다.

한편으로는 로씨야의 시인이 다시 온다면 또 어떤 시적령감을 터뜨리겠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글 우종환

조선서해의 해안선이 달라진다

룡매도간석지 3, 4구역/사진 조선중앙통신

담 징

담징(579년-631년)은 고구려의 중으로서 재능있는 화가이고 기술자이며 또한 학자이기도 하였다.

담징은 610년에 일본에 초빙되여가 그 나라의 문화와 기술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당시 일본에서는 아스까문화가 한창 발전하고있던 때이므로 유능한 학자, 기술자들이 많이 요구되였다.

담징은 이러한 시기에 일본정부의 초빙을 받고 그곳에 가게 되였다.

그는 일본에서 법륭사의 금당벽화를 맡아 그리였다.

금당벽화는 안팎모두 12폭의 불교관계의 크고작은 그림들과 천정밑의 20여개의 작은 벽면에 2개씩 그려놓은 비천(하늘을 나는 선녀)그림들로 이루어져있다.

수많은 그림가운데서도 6폭의 《아미타여래상》은 구도가 대칭적이면서 성격이 특색있게 살아난것으로 하여 더욱 이채로왔다.

특히 장방안 련꽃방석우에 위엄있게 틀고앉은 주인공의 모습은 예술적형상이 훌륭하여 당시 승려들과 화공들의 경탄을 자아냈다고 한다.

법륭사의 벽화는 동방미술사는 말할것도 없고 세계미술사에서도 특이한 자리를 차지하며 더우기는 일본의 회화미술의 첫장을 이루는 명화로 꼽히였다.

이 벽화는 창작된 때로부터 천수백년이 지났으나 색 하나, 선 하나 변함없이 그대로 보존되여 세계적인 보물로 미술가들의 찬탄의 대상으로 되여왔었다.

그러던중 1949년 1월 법륭사가 불타면서 금당의 벽화를 잃게 되였다.

그후 1968년 일류급화가들이 최상의 자재로 다시 복귀하여놓았지만 원화를 살리지 못하였다고 그들자신이 말하였다.

담징은 일본에 건너가서 회화뿐 아니라 과학기술발전에서도 큰 역할을 놀았다. 그는 발전된 고구려의 기술문화에 기초하여 채색법과 종이, 먹 그리고 물방아를 만들어쓰는 기술을 가르쳐주었다. 이러한 담징의 활동은 일본의 고대정사인 《일본서기》와 《법륭사전》에 기록되여있다.

그의 뛰여난 학문과 기술, 회화와 공예술은 일본의 문화와 기술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그의 작품들은 7세기초 고구려의 과학문화발전수준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 * *

장기수풀이 (21)

장기격언

다리없는 포 열개인들 부러우랴

포다리가 없을 때 포의 무력함을 뜻하는 말이다.

호상 쪽들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궁성을 벗어나 포다리가 없이 된 량포의 신세를 비유하는 말이다.

장기수풀이 (20)에 대한 답

ㅂ5상ㄹ2, ㄷ4차ㄷ2, ㄷ1포ㄷ6,
ㄴ5사ㄷ4, ㄴ1차ㄴ4, ㄷ4사ㄴ4,
ㄱ2말ㄷ3, ㄹ4말ㄴ3, ㄹ2상ㄴ5,
장훈

붉은색쪽이 먼저 써서 푸른색쪽을 이겨야 합니다.

총석정의 부부바위

강원도 통천군 통천읍의 바다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총석정은 절벽과 바위모양 하나하나가 기기묘묘한 자태를 이루고있어 예로부터 《통천금강》으로 불리우고있는 바다가명승지이다.

총석정아래에 나란히 의좋게 서있는 두개의 총석이 있다. 이 총석을 부부바위라고 부른다. 이 부부바위는 의가 좋지 못한 부부를 화목하게 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사랑의 상징으로 전해지고있다.

먼 옛날 총석정뒤 양지바른 언덕밑에 10여호의 농가가 모여사는 오붓한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의 외진 곳에 의가 좋지 못한 부부가 살고있었다. 그들은 서로 트집걸기 좋아하고 말다툼만 하더니 종시 화해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헤여지기로 작정하였다.

그들은 제가끔 자기 보따리를 이고지고 집을 나서 총석정 언덕에 올라섰다. 막상 갈라지자니 다투면서 살아온 지난날의 생활에서 그리워지는 한쪼각 미련도 있었고 마을도 집도 어쩐지 정다워보였다.

그러나 이미 모진 마음을 먹었던지라 두갈래의 오솔길을 따라 서로 남과 북으로 등을 돌려대고 떠나려 하였다. 순간 바다에서 갑자기 《쩡-쩡-》 얼음장이 갈라지는듯한 소리가 나더니 《게 멈추어섰거라!》 하는 노한 말소리가 뢰성벽력같이 울려왔다. 놀라서 돌아보니 부부바위가 대노하여 서있었다.

남편바위는 안해를 향해 섰고 안해바위는 남편을 향해 섰다. 그리고 제각기 하는 말이 《당신네들이 그렇게 의가 나쁘다 하니 오늘부터 나하고 사는것이 어떠하오?》라고 묻는 것이였다.

의가 나빴던 부부가 의아한 눈으로 바위를 쳐다보는데 어느덧 남편앞에는 절세의 미인이 얌전하게 와서있고 안해앞으로는 호걸미남이 스적스적 걸어오는것이 아닌가? 참으로 괴이한 일이였다. 꿈인가 생시인가 하여 각기 자기 살을 꼬집어보았더니 꿈은 아닌것이 틀림없었다. 미인은 여전히 수집은듯 다소곳이 남편옆에 와섰고 장대하게 생긴 미남은 싱글벙글 웃으며 안해옆에 와섰다.

그들은 서로 새 부부가 될것을 약속하고 정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밤 두쌍의 부부가 새살림을 펴고 지냈는데 날이 밝아 깨여보니 어찌된 일인가? 상대는 제 남편, 제 안해였던것이다. 서로 일어나앉아 눈이 휘둥그래졌는데 이번에는 《솨-솨-》 하는 거센 파도소리가 울리더니 다시금 부부바위의 우람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듣거라! 부모가 정해준 배필은 하늘이 맺어준 배필이니 의좋게 살아가면 천복을 받게 될것이니라.》

그후부터 사이나빴던 이들부부는 괴로움도 기쁨도 함께 나누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후부터 이 지방에 의가 나쁜 부부는 영영 없어졌다고 한다.

* * *

재능있는 풍경화가 정수영

정수영(1743년-1831년)의 처음이름은 수대라고 불렀다.

자는 군방, 호는 지우재이다.

옛 기록에는 《지우재만큼 깊은 정취가 풍기는 화풍의 격과 아름다움을 자연스럽게 창조한 화가는 드물다.》고 씌여져있다.

정수영은 정선의 영향을 받아 산수화의 발전에 이바지한 재능있는 풍경화가였다.

대표작으로 전하여지는 작품은 《청룡담》, 《기암절벽》, 《금강산진주담》, 《초가을》 등이다.

이 그림들은 그가 천하절승 금강산을 돌아보면서 보고 그린것으로서 여기에는 조국의 자연을 사랑하는 화가의 마음이 그대로 비껴있다.

정수영이 금강산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는 그가 스승인 정선의 집에 갔을 때 스승의 필치에서 남다른 충동을 받은 때부터였다.

그날은 스승의 생일인지라 화단의 이름있는 화가들과 제자들이 구름처럼 그의 집으로 밀려왔다.

그림밖에 모르는 가난한 살림이라 스승의 안해는 치마가 없어 할수없이 이웃집에 가서 비단치마를 빌려입게 되였다.

그런데 음식상을 들고나오던 스승의 안해가 그만 문턱에 발이 걸리는 바람에 국그릇이 기울어지면서 치마폭에 국물이 튕겨 얼룩이 지게 되였다.

스승의 안해는 얼굴이 금시 먹장구름이나 낀듯이 컴컴해지면서 얼룩진 치마걱정을 앞세웠다.

안해는 손님들이 돌아가기 바쁘게 치마를 금시 벗어 행주로도 닦아보고 물로도 씻어보면서 무진 애를 다 썼지만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다.

안해는 너무도 속상한 나머지 토방우에 쭈그리고앉아 옷고름으로 눈굽을 훔쳤다.

새것을 사자고 해도 집의 살림형편은 그럴만한 여유도 없이 매우 가난하였다.

뒤늦게 나오던 수영은 상심해 앉아있는 스승의 안해를 보게 되였다.

《부인님, 왜 그리 상심해하십니까?》

수영을 알아본 안해는 아무 말도 없이 덟어진 치마폭을 펴들었다.

《아니?》

수영은 심하게 덟어진 치마폭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글쎄 이웃집에서 빌려온 치마인데 제 불찰로 그만…》

안타까워하는 스승의 안해를 보며 수영은 안절부절 못하다가 급히 옷섶 안쪽을 뒤져보았다.

주머니의 돈을 다 꺼내보았지만 새 치마를 마련하기에는 너무나도 모자랐다.

밖에서 웅성이는 소리를 듣고 웬일인가 하여 스승이 나왔다.

안해의 무릎에 놓여있는 치마를 한참이나 들여다보던 스승은 안해에게 그것을 뜯도록 하였다.

《아니, 남의 치마를 어떻게…》

《원 별걱정을, 내게 다 생각이 있소.》

머뭇거리는 안해를 나무람하며 스승은 어서 뜯으라고 독촉하였다.

잠시후 안해가 주는 치마폭을 마루우에 반듯이 펴놓은 정선은 천천히 붓을 들어 거기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드디여 얼룩자리는 씻은듯이 자취를 감추고 기암절벽이 하나씩 솟아오르더니 마침내 금강산의 1만2천봉우리가 거연히 솟아올랐다.

그후 치마를 찾으러 왔던 옆집주인은 너무도 훌륭한 그림에 그만 넋을 잃고 미안해하는 정선 내외를 나무람할대신 감탄을 하며 너무 좋아 그 치마를 보물처럼 안고갔다.

이 내용을 알게 된 수영은 자기도 스승의 금강산그림을 보배처럼 간직하고싶어 자기에게도 한폭 그려줄것을 스승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스승은 도리머리를 저었다.

《그림이란 자기가 보고 느끼는 감정이자 마음인 법일세.》

스승은 금강산탐승의 길로 수영이의 등을 떠밀었다.

수영은 스승의 뜻대로 제손으로 금강산을 훌륭히 그리리라 마음먹었다.

금강산 깊은 골안의 산줄기들과 암석들, 맑고 청아하며 그 무슨 큰 보물이라도 감추고있는듯 끝없이 속삭이며 출렁거리는 푸른 담소들.

정수영은 직접 금강산의 명소들을 돌아보면서 많은 소묘와 담채화를 수없이 그렸다.

그때에야 정수영은 스승이 자기에게서 무엇을 바랐는가에 대하여 알게 되였다.

일상적으로 보고 대하는 조국의 산천초목을 정서적으로 감득할줄 아는 화가.

그의 이러한 감정은 그후 그림들에 그대로 반영되였으며 우수한 풍경화들을 남길수 있게 되였다.

하기에 정수영은 당시 사람들속에서 독특한 회화적양상을 도입한 화가로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

김일성종합대학 실장 박사 부교수 강명식

유모아

대추장사군과 호두장사군

옛날에 두 장사군이 있었는데 한사람은 대추를 팔고 다른 사람은 호두를 팔았다.

하루는 두사람이 같이 거리에 나갔다. 대추장사는 높은 목소리로 《대추사세요! 큰 대추는 씨가 작고 작은 대추는 씨가 없어요!》라고 소리쳤다.

이렇게 소리치니 많은 사람이 달려와 너도나도 대추를 샀다.

대추장사군이 인차 다 팔고 가는것을 본 호두장사군도 그가 하던대로 《호두를 사세요! 큰 호두는 씨가 작고 작은 호두는 씨가 없어요!》 하고 큰소리로 웨쳤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사람도 사러 오지 않았다. 오가는 사람들은 그를 보고 웃기만 하였다.

* * *

상식

민속명절 추석

추석은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민속명절의 하나이다. 가을저녁을 의미하는 추석은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철의 달밝은 보름날로서 음력으로 8월 15일이다.

올해 추석명절은 9월 17일이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추석이 오면 풍년농사를 지어놓은 기쁨을 즐기고 돌아간 조상들을 위하여 지성을 표시하군 하였다.

추석날을 《가위날》 또는 《한가위날》이라고 일러왔다. 그것은 추석을 앞두고 부녀자들이 편을 나누어 한달동안 밤늦도록 길쌈경쟁을 한 후 추석명절이 오면 음식을 차려놓고 노래부르고 춤추며 놀았는데 이를 두고 《가배》, 우리의 고유어로는 《가위》라고 한데서 유래되였다.

이렇게 놓고볼 때 추석은 근로인민들의 생산활동과정에 발생한 민속명절이라고 할수 있다.

풍요한 가을철 추석날에 만들어먹는 명절음식은 가지수도 많고 맛도 이채로왔다. 추석날의 독특한 명절음식으로는 햇곡식으로 만든 떡류, 당과류 등을 들수 있다. 그중에서도 송편은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추석을 상징하는 명절음식으로 되고있다. 때문에 사람들은 추석이 오면 의레히 송편부터 먼저 생각하였으며 이날에 만들어먹는 송편을 《추석송편》이라고 하였다.

우리 인민은 추석날에 바줄당기기, 활쏘기, 그네뛰기, 씨름, 길쌈놀이 등 다양한 민속놀이도 진행하였다.

* * *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홈페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

뒤표지: 금강산의 비봉폭포/김혁주

ㄱ-24088020670